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26일)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더 이상 이런 일 없어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9월 16일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현장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추모의 장소'를 찾아 헌화한 후 종단 스님들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 광폭 '소통' 행보

불교계 내부로는 '만남 · 대화'
권역별 본사 릴레이 간담회
전국비구니회서 현안 청취도

대사회문제엔 '참여 · 동행'
9월 16일 '신당역' 직접 찾아
"사회적 문제도 외면 않겠다"
춘추관 장애 작가 전시회 관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최우선 종책기조로 내걸었던 '소통'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 내부로는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등과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고, 외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사회 현안에 직접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당선인 신분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광폭 행보인 만큼, 각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실현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9월 28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분주한 활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 15일 담양에서 호남 및 제주권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만나 종책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데 이어, 다음날인 16일에는 전국비구니회관을 방문해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간담회를 열어 비구니 스님들이 직면한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스님은 앞서 지난 8월에는 강원권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또 9월 5일에는 경기 및 충청권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별, 분야별 릴레이 만남을 이어왔다. 특히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는 진우 스님이 내건 또다른 핵심 종책기조인 '교구' 실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전국비구니회 간담회를 계기로 차기 집행부를 향한 비구니스님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6일 진우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종단 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확대 △교구별 비구니 공동수행시설 및 요양원 건립 △선학원 도제의 권리제한 완화 △복지 전담부서 신설 △2023년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제18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 개최에 대한 종단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를 주의 깊게 경청한 진우 스님은 즉각 사안별 검토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진우 스님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례적일 만큼 적극적인 소통행보에 나선 것은, 종책 공약을 대중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에 기인하고 있다. 스님은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면서 선거운동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선인으로서 이례적인 광폭행보는 취임 전 각계와의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종책 점검과 공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대사회적 현안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모습도 주목된다.

진우 스님은 9월 16일 전국비구니회 간담회를 마친 직후 신당역에 설치된 '역무원 스토킹피살사건'의 피해자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혜도 · 철우 · 정관 스님도 함께해 반야심경 봉독으로 추모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빠듯한 일정에도 추모 공간 방문에 대한 강경한 의지로 일정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2022년 장애예술인특별전-국민속으로, 어울림속으로'를 관람하기도 했다. 도슨트 안내를 받아 작품 60여 점을 꼼꼼히 관람한 스님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로운 작품세계가 불교적 가치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장애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불교계 안팎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만큼,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행보에 남다른 기대가 실리는 분위기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종교지도자가 대사회문제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직접 행보하는 모습 자체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37대 집행부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구니종회의원 후보 10인 확정

전국비구니회, 9월 15일 제30차 운영위원회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에서 4년간 비구니 종회의원으로 활동할 10인의 추천후보가 확정됐다. 교학수행 분야에는 진상 · 철우 스님이, 포교분야에는 정운 · 혜도 스님이, 복지분야에는 정관 · 지인 스님이, 행정분야에는 법해 · 설해 스님이, 사회문화분야에는 혜성 · 진명 스님이 선출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3일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명의 후보자를 종단에 추천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5일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제3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5개 분야에 출마한 13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최종 10명을 선출했다.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107명 가운데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됐으며, 비구니중앙종회의원후보선출위원회가 사전배포한 입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13인 입후보자의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를 진행했다.비구니 종회의원 후보는 5개 분야별 각 2인이 선출된다. 이에 입후보자가 각 2인씩 출마한 교학수행분야와 행정분야는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50조에 의거해 선출을 결의하고 선거절차 없이 법해 · 설해 · 진상 · 철우 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입후보자가 각 3인 출마한 포교분야와 복지분야, 사회문화분야는 경선으로 진행됐다. 3개 분야당 각 2인, 총 6인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거 결과 포교분야에는 정운 스님과 혜도 스님이 각각 75표, 71표를 확보해 당선됐으며 자용 스님은 24표에 그쳤다.

회칙 선거법 제정후 첫 선거
무투표당선 교학 · 행정분야
진상 · 철우 · 법해 · 설해스님

3개 분야 입후보자 투표진행
혜성 · 진명 · 정운 · 혜도 스님
정관 · 지인 스님 최종 선출돼

복지분야에는 정관스님과 지인 스님이 각각 77표, 48표를 받아, 45표를 받은 청욱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또 사회문화분야는 혜성 스님과 진명 스님이 각각 66표와 77표를 획득해 후보로 선출됐다. 대안 스님은 27표에 그쳤다.

당선된 후보스님들은 각기 분야에서 활동계획과 포부를 밝힌데 이어, 전국비구니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서로 화합하며 비구니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이번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며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비구니 차별 조항을 개선하고 비구니 권익과 수행환경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출위원장 본각 스님은 "오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한 위원 스님들을 보니 축제하는 마음이 든다"며 "다만 재단법인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 도제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갖지 못한 운영위원 스님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활동으로 이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선거를 지켜보는 마음이 감개무량하다. 당선되신 의원 스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며 "비구니로서 자립하고 절대적으로 화합을 최우선해서 사람이 아니라 전국비구니회라는 조직을 도와주길 바란다. 앞으로 종단과 전국비구니회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자비와 상생의 발우공양
2022년 제13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2009년 제1차를 시작으로 2022년 제13차를 맞이하는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수행식이면서 자연식인 사찰음식을 일반대중이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사찰의 전통음식문화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자비와 상생의 발우공양'이라는 주제로 평등과 절약,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의 정신 속에 자연과 생태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우공양의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22년 10월 7일(금요일) ~ 10월 8일(토요일)
▸장 소 : 수원 봉녕사 경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YouTube 봉녕사
※ 본 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금)

시 간	행사일정
07:00 ~ 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셋팅
09:00 ~ 10:1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10:10 ~ 11:10	비빔밥 퍼포먼스
11:10 ~ 12:00	육법공양
12:00 ~ 12:50	발우공양 시연
12:50 ~ 13:40	지견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3:40 ~ 14:30	우관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4:30 ~ 15:30	헌다례 시연

10월 8일(토)

시 간	행사일정
09:30 ~ 10:30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졸업식
10:30 ~ 11:10	육법공양
11:10 ~ 12:00	탁발순례
12:00 ~ 12:50	선재스님 사찰음식 특강
12:50 ~ 13:40	선재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3:40 ~ 14:30	여거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4:30 ~ 16: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2부 : 퓨전국악그룹 퀸 공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 공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SUWON CITY

회향 앞둔 제36대 집행부, 종무이양 준비 분주

취임준비위 가동…매주 1회 이상 준비단별 논의

9월 27일 원행 스님 퇴임식
당일오전 공식인수인계 진행
4년 성과기록 자료집 배포도
10월 5일 오후 2시 취임법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9월 27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집행부로의 종무행정 이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총무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회의테이블을 상시가동 중이며, 원행 스님의 퇴임식과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퇴임식은 9월 27일 오후 2시 예정됐다. 제36대 집행부 임기를 공식 회향하는 자리인만큼, 지난 4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함께한 소임자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간의 인연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내외빈 초청을 최소화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조촐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원행 스님이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의 소회를 밝힌데 이어, 각계 인사들의 영상메세지를 통해 인연을 되짚은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36대 집행부의 분야별 성과와 활동기록을 담은 자료집이 이날 공식배포될 예정이다.

퇴임식 당일 오전 11시에는 36대 · 37대 집행부간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가 취임법회 원만봉행과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수인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준비위원회는 호산 스님과 진화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취임법회준비단, 인수인계단, 종책개발단, 수행단,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취임법회준비단장은 호산 스님과 지현 스님으로 구성됐으며, 인수인계단은 단장 진화 스님과 부단장 성화 스님, 종책개발단장으로는 만당 스님과 삼조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 수행단장 원명 스님이 당선인 진우 스님의 대내외행보 및 의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변인 성화 스님이 공식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준비위원회에는 총무원 차팀장급 종무원들이 분야별 실무진으로 대거 참여해 37대 집행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실무전반을 맡고 있다. 취임법회준비단에는 총무부와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차팀장를 비롯해 조계사와 연등회 소속 실무진이 결합했으며, 인수인계단은 총무원 6개 부서 팀장들이 실무를 맡았다.

준비단 별로 최소 주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체준비단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분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등 37대 집행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진행 중이다. 종무행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수인계는 9월 16일 1차 보고에 이어, 9월 19일 이후 당선인 진우 스님에게 총무원 각 부서 및 산하기관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인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종책자료집을 통해 발표한 3대 핵심기조와 7대 중점분야, 37개 종책과제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37대 집행부의 종단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비전과 슬로건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의 임기개시일은 9월 28일이지만, 공식 취임법회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취임법회는 당선인 진우 스님의 헌화를 시작으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 진우 스님의 취임사,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의 격려사를 비롯한 각계 축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제36대 집행부에서 일궈낸 성과를 잘 계승하고 남은 과제를 중단 없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현안을 심도 깊게 점검해 새로운 집행부의 종책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취임법회 준비로 빠듯한 일정이지만 원만한 종무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역 피습 피해자 사노위 극락왕생 발원

9월 16일, 추모공간서 기도회
스토킹 범죄 방지책 제정 촉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로 역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노위는 9월 16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노위원 동신, 여등, 대각 스님이 동참했다. 기도회에 앞서 대각 스님은 "차별 없는 세상, 인간이 평등하게 삶을 보장받는 세상, 서로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세상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노위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 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노위는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리고 일상을 뒤흔들어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기도회 후 스님들은 여자 화장실로 이동,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또 애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게시판에 '한국에서 다시 한 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발원한다'는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다시는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발원했다.

추모공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기도회가 끝나길 기다린 후 헌화를 하고 애도의 말과 함께 '스토킹피해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해 온 입사 동기에 의해 살해당했다. 전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재민 돕기에 불교계 자비 손길 이어져

재단, 용화사작업장에 300만원
서초자활센터, 수해민에 도시락
동대WISE캠, 피해학생 장학금

최근 수도권에 이어진 폭우로 인명피해와 산사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14일 김포 용화사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유성균)을 찾아 수해복구기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빠른 재건을 응원했다.

용화사장애인보호작업장은 8월 중순 이어진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작업장 비상구 축대가 무너는 등 붕괴 위험에 빠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한 시설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인 스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장애인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현재 태풍 '힌남노' 피해 수재민들을 돕는 모금을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피해가 파악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물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모금(하나은행 271-910006-64104,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이사 원명) 산하 시설 서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은윤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비닐하우스와 지층 거주자를 중점으로 도시락을 배포하고 있다.

식사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을 제작, 배송하는 '든든한식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지역자활센터는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추석맞이 특식을 제공하는 등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 WISE캠퍼스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생에게 특별 재난장학금을 지급한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태풍 피해로 슬픔과 고통을 겪는 학생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학업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 임은호 기자



연등회 아름다움, 파리를 밝히다

연등회 보존위, 파리 홍보행사 성료

연등회보존위원회(보존위원장 원행)가 5월 24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연등회: 빛과 색의 향연' 특별전이 누적 관람객 수 5만 명을 돌파하며 9월 16일 성료했다. 전통등 전시, 미디어아트맵핑, NFT아트전 등 3개 분야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주프랑스문화원 개원 이래 최다 관람객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행사 기간 동안 약 30회 50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 기관 및 단체, 각종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방문 프로그램, 현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 및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문화원 탐방' 행사 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미디어 아트 전시는 사전 관람 예약과 동시에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미니언즈' 시리즈를 연출한 피에르 코팽 감독은 전시를 관람 후 "전시 콘텐츠가 매우 훌륭하다"고 호평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나를 바라 보는 또 다른 세상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숭인동)
전화 : 02)763-3109
홈페이지 : www.myogaksa.net



도심 속 고요한 휴식공간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곳, 현재에 존재함이 내 자신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도심 속 사찰 묘각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었다 가세요.

Where is your mind?

▶ 1박2일 체험, 당일 체험
▶ 108배, 참선, 다도 & 스님과의 대화, 예불, 타종, 사찰안내

문화예술인 공간 '무산선원' 개원

9월 19일 개막식 · 시 낭송회 개최

무산 스님 화합 정신 선양 공간
"종교 구분 없는 공간" 발원하며
불상 옆엔 성모마리아 상 설치도
"사찰 고요하다 고정 관념 깰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9월 19일 문을 연 무산선원에서는 매월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가 개최된다. 낭송회 개최 주축인 신달자 시인(왼쪽),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운데),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오른쪽).

서울 한복판 북악산 자락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무산선원(霧山禪院)'이 문을 열었다.

무산선원(주지 선일)은 만해 스님의 항일 독립정신과 이 시대 선지식이자 시조시인이었던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1932~2018)의 화합과 상생 정신을 선양하는 공간이다. 생전 문화예술분야에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무산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법석을 펼치는 곳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은 9월 15일 선원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산선원은 '사찰은 고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곳"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수시로 행사를 열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선원에서는 매달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북한산 자락인 성북동에 자리한 무산선원은 작은 암자를 매입,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설악산 신흥사 말사로, 660m² (약 200평) 남짓한 대지에 법당(약 20평)과 강당(약 50평) 등으로 이뤄졌다.

무산선원 곳곳은 무산 스님이 생전 남긴 시와 그림으로 채워져 눈길을 끈다. 법당 옆면과 뒷면은 무산 스님이 생전 남긴 그림이 새겨졌고 강당에는 스님이 생전 수했던 가사와 함께 유골함, 주석했던 백담사에서 공수한 돌로 조성된 돌탑이 전시됐다.

입구 쪽 마당에 마련된 불상 옆에는 약 2m 높이의 성모마리아 상도 들어설 예정이다. 종교 구분 없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길 마음에서다. 이는 종교 간 화합을 강조했던 무산 스님의 뜻이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산 스님에 대해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넘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학과 음악, 미술을 모두 아우르며 문화예술인과 담론을 즐긴 선사"라며 "무산선원 개원을 계기로 무산 스님의 차별과 분별없는 세상을 향한 깊은 뜻을 계속 받들겠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지지만 무산선원에서 펼쳐질 문화행사를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산선원은 권영민 명예교수와 신달자 시인 등이 주축이 된 '무산을 그리워하는 모임'(가칭)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9월 19일 개최된 '제1회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에 모인 문화예술인들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 '아지랑이' '일월' 등을 낭송하며 스님을 그리워했다.

신달자 시인은 "시 낭송회를 통해 만해 선사와 무산 대종사의 시 정신을 다시 일깨우면서 모두가 시를 통해 정서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은 "무산선원은 무산 조오현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고 이를 널리 선양하기 위한 열린 선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산선원을 근거지로 해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온 무산 스님의 높은 뜻과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가려 한다"면서 "무산선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가불교 헌신, 손안식 중신회 고문 별세



50여 년간 재가불교운동을 이끌어온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사진〉이 9월 13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손 고문은 1970년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신인 전국신도회의 조직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이후 중앙신도회와 통합으로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끈 장본인이다.

2004년 조계종 중앙신도회로의 통합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재가불교운동을 이끌었으며, 특히 종교평화위원회를 구성해 종교편향 근절에 앞장섰다.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으로서 활동해오던 손 고문은 2016년 물러나 고문으로 신도회 방향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손 고문의 묘역은 서울추모공원에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불교대중화와 신도조직화, 사회화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며 고인을 기렸다. 노덕현 기자

불교 "광화문광장 불교史 왜곡 시정"

서울시 "적절한 내용 반영할 것"

조선 중기 때 불교중흥에 앞장섰다가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희생된 보우스님을 '처벌'로 표기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한 '광화문광장 연표석'에 대한 불교계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연표 수정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9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새로 조성한 광화문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석에 서울시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종교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톨릭 김대건 신부 사망은 '순교'로, 조선불교를 중흥시킨 고승이었던 보우스님을 '처벌'이라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은 9월 16일 광화문광장을 찾아 해당지점을 살펴보고 서울시와 시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사찰 위 지나는 전철로 폐사 위기

관할청, 협의 없이 공사 강행
보상 없이 토지 헌납 요구도
조주 스님 "논의 자리가 먼저"



우즈베키스탄 자은사가 법당 위를 지나는 전철 공사로 폐사 위기에 몰렸다.

중앙아시아 '스탄 지역' 유일 한국 사찰인 우즈베키스탄 자은사(주지 조주)가 법당 위로 지나는 전철 공사로 도량 안전과 기능 상실을 넘어 폐사 위기에 몰렸다. 주지 조주 스님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설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토지 헌납까지 요구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철 건설 공사의 철로 일부분이 자은사 위를 관통하면서 시작됐다.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에 따르면 관할청은 정당한 보상은커녕 협의조차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경내 위를 지나는 전철 건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조주 스님은 "자은사 경계를 침범하는 모습에 수차례 관할청에 상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들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과 대화를 회피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러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자은사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시 종교국과 종교위원회 및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불교사찰이다. 1991년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해 199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조주 스님이 인수하면서 재건, 현재 중앙아시아 한국불교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신앙처로서, 타국살이 설움과 애환을 달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30여 명의 신도가 매주 법회에 참석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전망조차 설치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경내에 건축자재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절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되자 신도들의 발길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은사 측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찰을 폐사하고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땅을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측에도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대사가 한 번 다녀갔을 뿐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도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 책임자와의 면담이며 사찰 이전과 대토 등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자리 마련"이라면서 공식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조주 스님은 한국 불자들에게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에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한 항의 전화와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 환아에 1000만 원

9월 13일, 양육자 묘담 스님에 전달

네이버 해피빈 통해 모금 진행
5일만에 목표액 990만원 달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13일 윤보현 환아(5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13일 재단 임원실에서 선천성 심장판막증과 협심증 등 선천적 장애와 난치병을 앓고 태어난 윤보현 환아(5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재소자의 아이로 태어난 보현이는 엄마의 친권 포기와 선천적 장애까지 앓고 있어 입양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었다. 난치병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6회에 걸친 심장수술과 폐 수술을 버텨냈다.

서울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이 보현이의 법적 보호자가 돼 양육하고 있으며 수급비와 스님의 사비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 1000만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온라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5일 만에 819명의 네티즌이 동참하면서 목표액을 순식간에 달성할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일(토) ~ 10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12월말 입금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

불교, 공공부문 마음돌봄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 9월 6일부터 마음치유 '늘봄' 프로젝트 시작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개발
불교명상지도사 파견, 4주 지도
공공분야종사자 중심으로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이 봉은사서 진행한 생명살림법회 모습.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불교명상을 활용한 마음치유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9월 13일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진행계획을 밝혔다.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은 불교상담개발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진행하는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으로 명상을 통해 의료, 복지, 재난 분야 공공서비스 종사자들과 소외계층 마음돌봄이 이어진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선적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 복지분야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준비해왔다.

개발된 명상프로그램은 '참깨나무'로 '참여하기' '깨어있기' '나눔하기' '무르익기' 등 4주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시작은 9월 6일 천안노인대학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총 90회에 걸쳐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불교상담개발원의 마음치유 '늘봄' 프로젝트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마음치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눈길을 끈다.

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의 마음치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MBSR 등 서구에서 도입된 명상이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 전통에 기반한 명상은 제공되고 있지 못했다"며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경찰, 소방 등 여러 공공분야에서 마음치유에 불교명상을 비롯한 명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의 이번 사업 진행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는 수년간 배출된 명상지도사들의 활동영역 확장과 공공분야 전법포교 기회 확장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르면 불교상담개발원은 마음돌봄이 필요한 곳에 불교명상지도사 전문가들을 강사로 파견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유도한다. 불교명상지도사는 현재 3기까지 총 60여 명이 배출된 상태다.

선업 스님은 "전문가 강사들이 각 기관을 찾아 사회적 약자들과 종사자들을 도울 계획"이라며 "늘 바라보고 돌본다는 '늘봄'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사회 곳곳에서 불교명상을 통해 사람들의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는 광진노인데이케어센터, 룸비니어린이집,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태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9월 18일 봉은사에서 '몸마음쉼'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를 진행, 자살예방을 비롯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나선다. (02)737-7378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길"

동국대에 자비보시행,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9월 15일 동국대 총장실에서는 작은 행사가 마련됐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사진〉가 2100만 원 상당의 사과즙 1200세트를 기증한 것이다. 환경미화원 등 종립학교 종사자들과 재학생들을 위한 자리에서 학교 측은 감사인사를 건넸다.

불자인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는 과일과 채소류, 유지류 등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광범 명인 참기름'을 비롯한 친환경 최상급 제품을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른 새벽이면 가락시장으로 직접 달려가 물건을 살펴보고 이를 유통한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하루에 피곤할 만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좀 더 좋은 상품을 전하는 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윤보다는 잘 만든 좋은 식품을 전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큰 규모의 유통법인이 아님에도 최 대표의 자비보시행은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연장학회 후원을 비롯해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고 밥차 봉사 등을 이어왔다. 1995년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에는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도 수료한 인연으로 동국대에서는 중강당 좌석 기부를 비롯해 동국사랑 111 등 기부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국제불교연합 회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학교 건립 후원 등 불교국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들 국가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구매해 수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동국대에 다니며 부처님 자비사상에 대해 알게 됐고, 자비실천에 대해 마음먹게 됐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기부자리에서 좀 더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3년 만에 팔재계 수계법회 연다

9월 24일 법주사에서

전국의 조계종 포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지계를 다짐하며 전법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3년만에 다시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9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18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사 3000여 명이 참석해 계를 받고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제27회 일반 포교사고시 합격자 359명에 대한 품수식과 포교사 연수를 위한 특강, 포교원력을 다지는 한글금강경 독송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모녀인 봉국사불교대학 박국남, 조주연 씨와 자매인 백련암 홍혜영, 홍희정 씨 등 가족 합격자가 이름을 올렸다. 또 최연소 합격자는 만 3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80세다.

한편, 팔재계 수계법회는 신라 진흥왕 12년부터 내려온 문화로, 재가 불자들이 수행을 점검한 데서 유래됐다. 노덕현 기자

"국악 속 불교문화, 유튜브로 알릴터"



불교크리에이터 3기 만나다
② '팔방미희 산사버스킹' 권미희 국악가수



"사찰에 가면 접할 수 있는 것이 찬불가이고 우리 국악입니다. 국악가수로서 한국 전통 속의 불교문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9월 15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3기 불교크리에이터 위촉식에서 위촉된 국악가수 권미희 씨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국악가수로서 2009년 찬불가제작위 가창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2010년 앨범 '천상의 소리꾼'을 내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권미희 씨는 대한불교청년회 및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불교계 홍보대사도 맡아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악가수지만 불교계 활동이 많기에 그녀는 2016년 만든 '팔방미희'라는 공식 유튜브채널(youtube.com/channel/UCctKz7gM1fXf11xqB011tng/featured)에서 최근 산사버스킹이라는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권 씨는 "우리 사찰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다. 우리 노래와 함께 사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다"고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를 전했다.

권 씨는 산사음악회에 갈때마다 공연만 하고 오기에 아쉬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권 씨는 "사찰에서는 평안함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권 씨는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공연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양한 불교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크리에이터로서 자부심이 큽니다. 음성공양을 통해 앞으로도 널리 포교활동을 하라고 선정해 주신 부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제20회 붓다빅퀘스천, 10월 15일 대면 개최

세계 주요 종교 사상 및 메시지 탐구

불광미디어와 마인드 아카데미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오늘 붓다 · 예수 · 무함마드 · 소태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20회 붓다 빅 퀘스천'을 개최한다.

붓다 빅 퀘스천은 총 5명의 강사가 30분씩 강연 후 즉문즉답하는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린다. 참가 신청은 불광미디어 웹사이트 신청자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참가자들에게 마인드 아카데미가 발행한 〈예일대학 명상수업〉이 증정된다.

이번 붓다 빅 퀘스천에는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마중물 강연으로 '종교,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할까?'라는 화두를 풀어낸다. 이어 인도고전학과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가 불교 전승의 역사에서 남아있는 지혜를 전한다.

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 교수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일원상의 진리와 함께 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대해 설한다. (02)420-3200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조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불자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청계로 475) 전화 031)426-2348,2221 팩스 031)426-3666



독서·참선·레저…가을 템플스테이서 만난다

특색있는 가을 템플스테이 10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에서 벗어난 뒤 처음 맞이하는 가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산과 들로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차분한 정중동의 마음가짐이다. 사색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스스로를 반추하는 데 템플스테이만한 것이 없다. 한번쯤 가볼만한 그리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서울·경기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조계사**는 '경복궁 책방길' 과 연계한 1박 2일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경복궁 책방길' 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 건너 서촌길에 작은 책방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명칭이다.

10월 7~8일, 11월 11~12일 두 차례 진행되는 '경복궁 책방길 템플스테이' 는 지정된 책방에서 책을 구입해 사찰로 돌아와 큰방에서 함께 독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좋은 구절은 표시했다가 참가자 모두에게 들려주는 낭독의 시간도 갖는다. 가을 프로그램에 지정된 책방은 역사에 관한 책이라면 뭐든지 다 있는 '역사책방' 이다. 체험비는 5만원이고, 도서구입비는 별도다. (02)768-8660

비장(秘藏)된 산사의 가을 숲길을 만나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교종본찰 봉선사**는 '비밀의 숲 산책 템플스테이(1박 2일)' 를 매주 주말 상시운영한다. 108배와 108염주 만들기를 비롯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으로 지정된 봉선사 일원의 광릉숲깊에서 걷기명상이 진행된다. 조계종 신도증과 봉선사 신도증 소지자는 참가비 10% 할인된다. (010)5262-9969

충남·충북

가을 은행나무로 유명한 사찰 중 한 곳은 충북 영동군 영국사다. 영국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23호로 지정돼 있다. **영국사**에서는 '은행나무 처럼 템플스테이(1박2일)' 를 주말마다 상시 운영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충북 지역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영국사의 문화재 탐방과 망탑봉 트레킹이 진행된다. 트레킹이 어려운 사람은 스님과의 차담을 선택할 수 있다. (010)4378-8843

조계사-경복궁 책방길 연계 프로그램

상사화 최대 군락지 만나보는 불갑사

망경산사, 메주 만들기 체험 '눈길'

무문관 · 캠핑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민족의 영산' 계룡산을 트래킹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있다. **충남 갑사**는 매월 2주차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동안 '구곡 트레킹 템플스테이' 를 운영 중이다. 갑사 초입부터 신흥암 수정봉에 이르는 갑사구곡을 찾아 떠나는 '갑사구곡 트레킹 템플스테이' 는 트레킹 이외에도 별빛명상, 철당간 사색의 길 산책, 용문폭포 걷기 명상 등이 진행된다.



또한 갑사는 전문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문관 템플스테이(최소 2박3일 이상)' 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041)857-8921

강원

우리가 매일 먹는 간장과 된장의 기본 재료인 메주를 만들어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있다.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기슭에 있는 **망경산사**는 10월 28~30일 '메주 만들기 체험 템플스테이' 를 연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새끼를 꼬는 모든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템플스테이(10월 8~9일)' , '자연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10월 15~16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오롯이 쉬고 싶다면 휴식형 템플스테이도 추천한다. **동해 삼화사**는 휴식형 '무릉별유천지 템플스테이' 를 운영 중이다. 예불과 공양시간만 잘 지키며 '무릉별유천지' 글씨가 있는 용추폭포 산책이나 독서 등을 즐기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010)4219-8822

전라·광주

광주광역시 증심사에서는 가을 산사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10월 15~16일 열리는 증심사의 '캠핑이 있는 템플스테이' 는 1~2인, 3~4인으로 나눠 진행돼 가족과 친구, 연인이 체험하기 안성맞춤이다. 한 가족당 개별방사 1개 및 텐트 1동, 테이블1개, 캠핑 의자들이 제공되며 공용으로 사찰음식, 간식(옥수수)이 제공된다.

또한 전문 요가 강사에게 요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요가가 있는 템플스테이' 도 9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 (010)5601-0109

전남 영광 불갑산 불갑사에서는 가을 상사화를 만날 수 있다. 불갑산에는 7월 중순부터 진노랑상사화가 피기 시작해 붉노랑상사화, 백양꽃 등 다양한 상사화속 꽃이 차례로 피어나며, 9월 중순에는 전국최대의 군락지를 가진 석산에 활짝 피어나 불갑산을 온통 붉게 물들인다. 불갑사의 '꽃길만 걸어요 템플스테이(1박 2일)' 는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010)8631-1080

경북·경남

포항 보경사에서는 고즈넉한 숲길과 내연산 12폭포가 있는 계곡길을 거닐 수 있는 '자연과 함께 내면의 행복찾기 템플스테이(1박2일)' 를 주말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경사 성보박물관 견학을 비롯해 108배와 명상, 내연산 폭포 산행 등이 이뤄진다. (054)262-5354

외부와 모든 것을 단절하고 수행하고 싶다면 **해인사**를 추천한다. 해인사에서는 '무문관 템플스테이(5박 6일)' 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전문적인 수행인만큼 아무나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다. 사전 전화 예약은 필수고 담당 스님과 면접 후에 입방이 결정된다. 체크인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다. 퇴실일에는 스님과 무문관 템플스테이 후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해인사는 당일형, 주말체험형, 장기휴식형, 팔만대장경 순례 등 다양한 유형의 템플스테이가 운영되고 있다. (010)4763-3161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정보와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s://www.templestay.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58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

일시 : 2022년 10월 1일(토) 10시 장소 : 밀양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산옹지은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전화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통도사, 천년문화 알리는 '개산 1377주년 축제' 연다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산 1377주년 기념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연다.

이번 개산대재에서는 특히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과 참여의 장'과 개산조 자장 율사의 계율 정신을 기리는 '역사와 문화의 장'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행사 및 전시'가 마련된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산 1377주년 기념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경내 일대에서 연다. 사진은 2020년 개산대재 모습.

역사와 문화 사회 공유

'역사와 문화의 장'은 개산조 자장 율사를 기리고 역대 고승의 덕을 기리는 전통의식으로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부도헌다례(10월 4일 오후 2시/부도원) △가사배견(10월 4일/성보박물관) △고흥 금탑사 괘불 특별전(10월 1일 오후 2시~2023년 4월 23일)으로 진행된다.

자장 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은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진영을 안치하고 덕을 기리는 시간이다. 부도헌다례는 통도사의 고승대덕 스님들의 덕망을 기리며 차를 올리는 시간이다. 가사배견은 석가모니부처님과 자장 율사의 가라를 직접 친견하는 자리다.

시민 나눔과 참여 유도

'나눔과 참여의 장'은 일반인들이 직접 불교 전통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영축삼보 이운(10월 3일 오전 9시 30분/부도원) △괘불헌공(10월 3일 오전 10시/ 괘불대 앞) △영축문화공연(10월 3일 오후 1시 30분/ 산성반월교 옆 무대) △제1회 전국초·중·고 사생실기대회(9월 24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설선당 앞 및 경내 일대) △통도사 산사 플로깅(9월 25일~10월 16일/ 서운암, 자장암 등)이 진행된다.

영축삼보 이운은 괘불을 옮기는 의식으로 각종 번(幡), 기(旗)로 장엄된다. 이운은 부도원에서 설법전 앞 괘불대까지 이어지며, 이운 후 괘불에 공양을 올리는 괘불헌공이 진행된다.

영축문화공연은 '야단법석'이라는 부제를 붙일 만큼 시민에게 긍정적 기운을 북돋는 신명나는 무대로 진행된다. 공연에는 유명 가수 노라조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한다.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도 볼거리다. 사생대회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그리며 미래세대에게 전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린다. 참가자는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에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9월 27일 통도사 홈페이지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10월 4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각 70만 원, 은상 각 3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다채로운 문화행사 눈길

'문화행사 및 전시'는 △국화장엄(9월 3일~10월 23일/ 경내일대) △나도작가다(9월 3일~10월 10일/감로당 앞)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9월 17일~10월 4일/문수법당) △시화전(9월 17일~10월 4일/해장보각 앞) △유운불교미술전(9월 3일~9월 22일/ 명월료) △버섯사진전시(9월 24일~10월 14일/명월료)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화엄세계로의 초대'(9월 16일~10월 3일/무풍한송로 및 성보박물관 일대)로 진행된다.

국화장엄은 통도사 경내를 국화로 장엄하고 각 전각 및 시민들에게 꽃 공양을 올리는 행사다. 매년 가을 국화와 통도사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행사로 인기다.

이번 장엄국화는 양산시에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양산시와 통도사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조형작품을 함께 조성했다. 행사장에는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직거래 장터도 함께 열린다.

'나도 작가다'는 스님들이 직접 찍은 통도사의 일상과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며, 강원 및 학원 스님들의 서예작품이 전시되는 서예전도 열린다. 시화전은 부산불교문인협회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특별전으로 의미가 깊다.

또 2022세계유산 통도사 미디어아트 사업인 '화엄세계로의 초대'는 삼라만상을 품은 보리심의 빛을 주제로 열리며 주요 콘텐츠는 디지털 미디어맵핑, 빛오브제, 디지털 민화 특별전 세 가지로 구성됐다.

통도사는 "코로나로 경직됐던 시간에서 벗어나 모든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축제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에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복지協, 한가위프로그램 지원사업 펼쳐

9월 7일, 불교계사회복지관 1000만 원 전달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가 한가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및 청소년기관을 후원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9월 7일 여여선원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기관 10곳에 1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정여 스님과 사회복지법인 동주 대표이사 정오 스님, 복지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불교 복지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적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를 맞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상을향기롭게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배여행사는 이날 실내화 500개를 세상을향기롭게에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9월 7일 여여선원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강신문사는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문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천태종의 뜻을 받들어 '천태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심원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한 예술의 모태가 되어 왔으며, 특히 경전의 발전과 전승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불교문학의 갈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을 재기 넘치는 문학작품으로 승화하여 시대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2022년 천태문학상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천태문학상

제1회

마감
2022년 10월 31일

발표
2022년 11월 21일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금강신문사

공모 요강
-분야
운문(시·시조·동시 5편 이상)
산문(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자격
등단과 무관하며 누구나 가능
-접수
ggbn@ggbn.co.kr
(전자우편만 가능, 연락처 기재 필수)
-마감
2022년 10월 31일

심사 및 수상자 발표
-수상작 발표
2022년 11월 21일
개별 통보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
-수상작은 금강신문에 게재

시상 계획
-대 상
1편, 상금 1천만원 및 상장 상패
-우수상
2편, 각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상패
-장려상
5편,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상패
-시상식
2022년 12월 초순

기타
-응모작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하며
수상작이 표절작이거나 기존 발표작
등으로 밝혀지면 시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금 및 상장 상패 일체를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02-723-1548
2022년 천태문학상 운영 사무국



108사찰 순례단 삼보회는 9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삼보장학회, 동국대 WISE캠퍼스 장학금 전달

9월 15일, 장학기금 1000만 원 기부

108사찰 순례단 삼보회(회장 정분남 · 이하 삼보회)가 9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장학금 전달식에는 정분남 삼보회 회장과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박용기 대외협력처장, 여소현 이사, 이동희 이사, 이혜숙 이사를 비롯한 교내 관계자가 동참했다.

장학금은 삼보회 순례단이 매달 진행하는 108사찰 순례기도 동참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108사찰 순례기도는 9월 20일 양산 미타암에서 회향한다.

삼보회는 2013년 3월 동국대 WISE캠퍼스 삼보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학회 설립 후 학생 50명에게 장학금 5000여 만 원을 후원했다.

정분남 삼보장학회 이사장은 "불교 인재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인재불사에 동참해주신 삼보장학회 임원 및 회원들께 감사하다.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진정한 불교인재양성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인재불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삼보장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보내준 정재를 바탕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마하사, 자비의 쌀 1200kg 보시

9월 8일 부산 연제구청에서 전달식 개최

천년고찰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가 9월 8일 한가위를 맞아 연제구청에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마하사 신도 및 구청 관계자가 동참했다.

마하사는 이날 쌀 10kg 120포(3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쌀은 연제이웃사랑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 120세대에 전해질 예정이다.

주지 정산 스님은 "한가위를 맞아 지역에 있는 소외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길 바란다"며 "마하사는 부산 연제구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이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마하사가 9월 8일 한가위를 맞아 연제구청에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新문화 중심 '쿠무다', 부산문화 창달나선다

9월 15일, 부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활성 업무협약

지역문화 발전 협력 비롯
예술인재 양성 교류 진행
부산문화 속 불교문화 발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9월 15일 쿠무다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지역에서 꽃피는 현대적 불교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는 9월 15일 쿠무다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소통한다. 협약에 따라 쿠무다와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기타 기관 협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차재돈 사무국장, 최기운 총괄운영본부장, 고건욱 실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문화재단 측에서는 이미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수경 예술지원팀장, 안재홍 경영지원팀장, 김정 기획홍보팀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의 협약은 부산문화융성에 대한 뜻이 모였기에 가능했다.

주석 스님은 "부산에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예술인 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앞장서 온 부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 저변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산 예술인과 시민 누구나 '최상의 행복'을 마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쿠무다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원받은 예술인들이 부산문화재단과 인연이 깊다"며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신 주석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쿠무다와 함께 부산 예술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2013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북카페를 개설한 후 소규모 콘서트에서 대형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획 공연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2021년 12월에는 동해와 남해를 바라다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970㎡(898.4평) 규모의 복합명상문화센터를 열기도 했다.

이후 쿠무다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왔다. 동국대 장학지원을 비롯해 부산대 예술대학 발전기금 1억 원 지원 협약(매년 1000만 원 10년간), 대동대 외식서비스 후학 양성 5000만 원 지원협약(매년 1000만 원 5년간), 영산대 마이스(MICE) 5000만 원 후원 협약(1000만 원 5년간) 등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문화예술 인재양성의 폭을 더욱 확장하고자 재단법인 명경장학재단을 설립, 7월 7일 첫 행보로 동국대 문화예술 인재양성 지원금 3억 원 후원(3000만 원 10년간)을 약정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월 설립된 단체다.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고종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 봉행

9월 14일 태고총림 선암사서…총 47명 입소



한국불교 태고종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이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됐다.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이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됐다. 순천 선암사 정수원(원장 시각, 선암사 주지)은 9월 14일 대웅전에서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소식에는 남행자 37명, 여행자 10명 등 총 47명이 입소해 10월 14일까지 30일간 초급승려에게 필요한 기초의식 등을 교육받는다.

시각 스님은 "정수원은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을 이수하는 곳으로 엄격하고 정연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며 "남다른 각오로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살피고, 자비와 배려로 역경을 극복하길 바란다. 자신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을 발휘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욕지전생사(欲知前生事) 금생수자시(今生受者是) 욕지래생사(欲知來生事) 금생작자시(今生作者是)"라며, "선암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로 여러분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명 스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을 보려면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된다"며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마음을 닦고 수행하여 종단의 기둥과 대들보, 서까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선서를 진행한 혜월 행자는 "입소자 일동은 교육기간 동안 정해진 제반청규의 준수와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초교육과정을 원만히 이수하여, 발심수행자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예비역불자, 호국불교포럼 개최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서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박대섭)가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불교가 국가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제27회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했다.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한 행사에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은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면면히 내려오는 호국불교 사상과 활동, 그리고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임충빈 前 육군 참모총장은 불교가 국가에 끼친 영향과 현대 불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청소년과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두 섹션으로 나눠 먼저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와 호국 의승활동을 조명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고장 쌀, 우리지역 소외계층에게

향일암, 9월 13일 여수시에 자비나눔 쌀 3000kg 전달



기도성지 여수 향일암이 9월 13일 지역주민을 위한 자비나눔 쌀 3000kg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기도성지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이 9월 13일 지역주민을 위한 자비나눔 쌀 3000kg을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전달했다.

여수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지 연규 스님, 이영희 신도회장을 비롯해 정기명 시장, 박성미 의원(여수시의회), 이광일 의원(전라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나눔 쌀'은 여수에서 생산된 지역농산품(거북선에 실린 쌀)으로, 돌산, 삼산면, 남면, 화정면 등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연규 스님은 전달식에서 "자비나눔 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향일암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해마다 향일암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쌀을 구입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지역의원들이 참석해 향일암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성미 의원은 "향일암은 불교를 넘어 지역 최고 관광명소로 외부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도로개설과 안내이정표 설치, 유람선 정박시간 조정, 교통약자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연규 스님은 "향일암이 좋아지면 여수시가 좋아진다. 향일암이 문화와 역사, 종교시설이 함께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일암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중 하나이며 국내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서광당 재덕 스님 영결·다비식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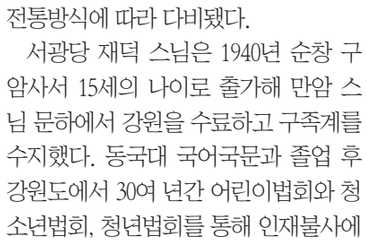
9월 13일 선운사 만세루와 연화대서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13일 서광당 재덕 스님 영결식 및 다비식을 선운사 만세루와 연화대에서 봉행했다.

만세루에서 봉행된 영결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아무라 수행이 깊어도 괴로움을 없앨 수 없으니,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야말로 참 공부"라며 "풀 한포기 뽑는 가운데 도가 있고 밥 한그릇 먹는 일상에 도가 있다던 가르침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범여 스님은 추도사에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동진 출가, 만암 스님 등 당대 큰스님들과 수행하셨고 한국전쟁에 참전, 제대 후 출가 본분인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으셨다. 스님께서 경험하신 삶은 그대로가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만장을 앞세우고 선운사 연화대로 이운돼 불교전통방식에 따라 다비됐다.


서광당 재덕 스님 다비식 모습.

서광당 재덕 스님은 1940년 순창 구암사서 15세의 나이로 출가해 만암 스님 문하에서 강원을 수료하고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국어국문과 졸업 후 강원도에서 30여 년간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 청년법회를 통해 인재불사에 나섰다. 이후 순창 강천사로 돌아와 불사와 불법 홍포에 매진, 선운사 노후수행마을에서 수행 중 9월 11일 열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회 주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053)980-7900 / 팩스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민국 남북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합니다."
산청 겁외사
회주 원택스님
주지 일학스님
겁외사신도회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日, 불교 메타버스 '테라버스' 등장

교토대학, 불교 정신세계 표현
일어로 1조 · 사찰 뜻하는 'tera'
'법구경' 활용해 인공지능 탑재
불상 모양 '붓다봇'과 대화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메타버스 세계에 등장한 불교 메타버스 '테라버스'의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야후 재팬 뉴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가상세계 메타버스. 메타버스 세계에 불교 정신을 표현한 가상세계가 등장했다. 교토대학 등 연구팀은 불교 정신세계를 메타버스로 표현하는 '테라버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9일 일본 '야후 재팬 뉴스'는 교토대학 발표를 인용해 가상세계에 등장한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AI 전문가들과 불교학자, 스님들이 모인 개발팀은 불교 메타버스 '테라버스'를 개발하고 첫 시제품인 '테라 플렛폼 AR'의 첫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개발팀은 "테라버스에서는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융합해 인간을 물리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는 중층적인 정신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개발 의도를 전했다. 이름인 '테라' 역시 숫자 1조를 뜻하는 'Tera'와 일본어로 사찰을 뜻하는 단어 '테라'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테라 플랫폼 AR'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현실 공간에 불교 AI의 아바타인 '붓다봇'을 불러올 수 있다. 불상 모습을 하고 있는 붓다봇은 대화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불교경전에 근거한 답변을 한다. AI 학습에 사용된 경전은 초기경전인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나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 중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대답해주는 이 AR 인공지능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도다. 개발에 참여한 쿠마가이 세이지 스님은 "많은 대중들이 불교에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AR 앱을 통해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상담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상 테라 플랫폼 AR에는 스마트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위치정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사찰을 건립하고 참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응용하면 현실공간에 있는 실제 사찰과 그 사원으로 등록된 사이버 공간을 동기화시켜 두 공간에서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도 있다.

개발팀은 "현재 일본의 많은 사찰들이 물리적인 건설이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VR이나 AR 등의 기술을 더욱 응용하면 장래에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찰을 건설 · 유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참배가 어려운 오지 등에 소재한 사찰의 경우 지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등, 각종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고 테라버스의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현재 테라 플랫폼 AR을 비롯한 테라버스 세계는 당분간 메타버스 이벤트회장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환경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학술적 이용과 모니터링 이용의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일반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발팀은 밝혔다. 개발팀 측은 "테라버스 상에서 전개되는 불교 환경은 단순한 오락이나 유흥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므로,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 "英여왕 많은 사람에 영감"

찰스 3세에 애도 편지
왕실 · 국민에 조의 표해


달라이 라마. 사진출처=트리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는 지난 9월 9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접한 후 여왕의 장남인 찰스 3세에게 편지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달라이 라마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새 군주(찰스 3세)와 왕실, 영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내가 어렸을 때 잡지에서 여왕의 대관식 사진을 본 것을 기억한다"라고 회상하며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군주로서 그녀의 통치는 오늘날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영감, 그리고 안정적인 연속성을 보여줬다"라고 애도했다.

이어 찰스 3세 국왕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자질, 품위, 우아함, 강한 봉사 정신, 따뜻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덧붙였다.

또 달라이 라마는 이튿날 영국의 국왕 자리에 오른 찰스 3세 국왕에게 축하 인사도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나는 당신이 친절과 애정으로 이 큰 책임을 완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신이 영국의 국왕 자리에 오른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영국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70년 4개월 간 재위해 영국 내에서 최장 집권 국왕으로 기록됐다. 이전 기록은 63년 7개월 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증조할머니인 빅토리아 1세 여왕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구를 42바퀴 도는 엄청난 거리의 외교일정을 수행했으며, 1952년 즉위 이후 89세가 될 때까지 100개국 이상을 방문한 기록도 세웠다. 여왕의 재위 기간 임명된 영국 총리는 총 15명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도심 속 실버타운…복합시설로 재탄생한 日 사찰

인구 감소 상황서 장례 의존 탈피
지역사회 열린 사찰로 문호 개방


카페와 실버타운을 한데 모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츠쿠다지마 분원. 사진출처=닛폰닷컴 뉴스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불교계에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카페와 실버타운을 한 곳에 모은 사찰이 창건돼 화제다. 9월 7일, 일본의 '닛폰 닷컴 뉴스'는 복합시설로 탄생한 '츠쿠다지마 분원'에 대해 소개했다.

도쿄의 중심부, 인기 상점가인 츠키시마 몬쟈 스트리트의 입구에 세워진 '츠키지혼간지 츠쿠다 빌딩'. 일본 최대 종단으로 손꼽히는 정토진종 니시혼간지파의 도쿄별원인 츠키지혼간지(築地本願寺)가 최근 건설한 빌딩으로, 건물이 입지한 츠쿠다지마 지구의 공식분원으로 건립됐다.

츠키지혼간지 측은 "츠쿠다지마 분원은 그 역사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1930년대에는 종단의 공식 포교원으로 오랫동안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도심 포교의 거점이자, 포교활동의 확대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됐다"며 새롭게 건립된 분원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츠쿠다지마 분원은 지상 9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설됐다. 법당은 2층에 만들어졌으며 최대 80여 명을 수용한다. 1층에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함께 수유실과 공중화장실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3층부터는 실버타운과 사무동이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사찰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츠키지혼간지의 부종무장인 히가시모리 쇼닌 스님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장례식과 무덤에만 의존한다면, 절이 존속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이미 장례불교라고 일본불교가 야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불교가 직접적으로 공헌하며 '살아있는 유대와 인연'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새로운 분원의 목적을 전했다. 2층 법당에 모셔진 본존불도 30년대에 세워졌던 포교원의 불상을 그대로 재봉안하면서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 했던 분원의 역사성도 그대로 살렸다.

츠쿠다지마 분원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스님이 상주하며 입주한 노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층의 카페에서는 불교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다. 카페는 실버타운을 방문한 가족과 입주자의 면회장소로도 활용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지역에 열린 사찰로 문호를 개방한다.

분원측은 "실버타운은 이미 20실 이상의 입주 검토가 진행 중이며, 카페의 경우 이미 매일 아침 한정 메뉴를 위해 장사진을 서는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녹아 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하와이 日사찰, 신도수 급감에 폐쇄 위기

고령화 등에 신도 수 15명 불과
외국인 신도 유치 등 변화 도모



사진출처=Civilbeat.org

하와이 라나이 섬에 위치한 97년 된 일본 정토진종 사찰이 최근 신도 수 급감으로 고민이 크다. 이대로 신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강제 폐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 사찰이 아닌 하와이 전역 사찰에서 겪고 있는 문제여서 불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9월 8일 "라나이 섬에 있는 라나이 홍완지 사찰(Lanai Hongwanji Mission)의 현재 공식 신도는 15명이다. 그러나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신도 수 급감의 원인으로 △일본인 신도 대부분인 기성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 △신도들의 타섬으로의 이주 △젊은 세대들의 무종교화 등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나이 홍완지 사찰은 최근 다양한 인종의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전통적으로 라나이 홍완지 사찰의 신도들은 일본인들이 주를 이뤘으나, 일본인 신도들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라나이 홍완지 정기법회의 지도 스님을 맡고 있는 신카이 무라카미 스님도 "신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본 사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동체의 사찰로서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토진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에 있는 정토진종 사찰은 32개, 신도 수는 약 4300명이다. 정토진종은 신도 수 감소에 따라 일부 사찰을 합병 또는 폐쇄해 왔다. 박정현 객원기자







누구나 보고 느끼고 깨닫는 곳…“절, 삶, 영화”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
이안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의 말대로 불교라는 것은 어려운 범어나 한자로 새겨진 경전에만 깃들어 있지 않다. 삶 자체가 질문이자 화두인 것이다. 흔히 영화는 삶의 축소판이라고들 한다. 그러니 어느 영화인들 화두로 삼는 주제 하나 없는 영화가 어디 있으랴. 저자인 이안은 서울대서 미학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문화이론과 영화학을 전공했다. 영화평론가, 대학에서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 프로듀서, 프로그래머, 영화제 운영위원장…. 그를 수식할 수 있는 직업은 한 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삶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매일의 삶이 질문을 던지는 날들, 매일의 삶이 화두 자체인 삶 속에서 저자는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영화를 통해 치열하게 그 답을 찾는다.

이 책의 첫 장을 여는 1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안에는 작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영화 ‘미나리’와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당신의 사월’을 포함한 6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1부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전반에는 액션부터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담은 다채로운 영화들이 소개된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반드시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한자로 가득한 경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여정 곳곳에서 언제든 불교의 교리와 마주할 수 있음을 일러주는 동시에 한 편의 영화에서 자신이 주목한 화두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이야기를 끌어간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히 노력해 보기도 하고, 마음의 짐으로 남겨 둔 채 살아가기도 한다. 화두란 불교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마음 안에서 자연스레 피어오르는 그 모든 고민과 갈등, 즉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이자 영화평론가인 이안 작가는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를 통해 불교적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본 영화가 ‘불교 영화’ 뿐인 것은 아니다.

이 책에는 액션부터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담은 다채로운 영화들이 소개된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은 한자로 가득한 경전뿐만이 아닌 우리네 삶의 여정 곳곳에서 언제든 녹아 있음을 일러주는 동시에 한 편의 영화에서 자신이 주목한 화두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이야기를 끌어간다.

어려운 범어나 한자로 새긴 경전이 아닌
영화 곳곳에서 마주한 불교의 가르침들

불교 앞세우지 않고도 불가 가르침 풀어내는 법

이 책은 총 4부로 나누어진다. 1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생과 사’라는 화두를 안고 있는 영화 6편이 소개된다. 1부의 문을 여는 작품은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인 가족이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미나리’다. 저자는 새롭고 낯선 터전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인물들의 지난한 삶의 여정을 따라간다.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암평아리는 살리고 수평아리는 죽이는 ‘병아리 감별’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살생이 아니라 가꾸고 키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민자들의 고민과 갈등에 주목하는 한편 영화에 등장하는 ‘미나리’가 상징하는 생명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이야기한다.

그런가 하면 불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환생’과 ‘변신’을 주제이자 스타일로 풀어낸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의 영화 ‘엉클 분미’에서는 죽음을 앞둔 ‘분미 아저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과정을 발견하며 영혼과 전생과 만물에 불성(佛性)이 있음을 깨닫는다.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모든 것은 흘러가고, 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으며 (…) 그 흐름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자가 된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가 겪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도 불가의 가르침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오락물 안에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영화”라고 소개한다.

‘자비’와 ‘용서’로 바라본 불교의 근원적 가르침

2부 〈세상 가장 낮은 목소리〉에서는 이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모든 ‘낮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화 8편에 대한 글을 엮었다.

언뜻 불교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코미디 영화 ‘정직한 후보’에서도 저자는 불교의 이상적 왕인 ‘전륜성왕’과 그가 전파한 가르침을 함께 엮어낸다. 경전 〈전륜왕사자후경(轉輪王獅子吼經)〉에서 언급되는 내용인 “진리에 따라 국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법의 파괴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국민이 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제지해야 한다”라는 근원적이고도 변하지 않는 교리를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교하고, 또 이런 상황을 코믹하게 풀어낸 영화에 대해 “권력을 탐하는 비리의 온상”인 한국 정치판 한가운데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전륜성왕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회”보다는 국민들 또한 바른 눈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뭇 생명은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존재

3부 〈생명을 품는 마음〉에서 소개된 10편의 영화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와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들과 우리를 포함한 생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서는 이 한 편의 영화로 인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동물들의 목소리”에 자연스레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아가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도 불사한 지율스님의 마음을 되새기고, “뭇 생명이 이 세상의 VIP이고, 그 중생들을 지키고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마치 “절에서 범종과 목어, 운판과 북을 울리듯” 영화와 그 영화에 깃든 웃음으로 문득 깨우친 자신의 내면을 새삼 발견하기도 한다. 또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이 천도재라면, 이 영화는 고독사한 불행한 사람의 영혼을 성불시키는 영화적 천도재”로 소개하며 영화의 핵심적 메시지와 불교 교리를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비유로 연결시킨다.

삶은 곧 수행이다

4부 〈무한한 인연, 희망의 연꽃〉은 인연을 바탕으로 희망을 꿈꾸는 영화 6편을 담았다.

2021년 개봉한 영화 ‘기적’ 안에서는 “발원을 세우고 더 나아가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하늘이 돌보아 뜻을 이루어주게 되는 지극한 힘”, 즉 가피력에 주목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철길을 따라서 가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집에 가야 했던 봉화 산골 주민들이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역 건물을 세우고, 승강장을 만들고, ‘양원역’이라는 이름까지 손수 지어 마침내 그곳에 기차를 서게 만든 놀라운 실화를 한 이 영화를 보며 저자는 정성을 다하는 진인사의 마음을 되새긴다. 그리고 이 공간을 “대중울력과 가피력이 깃든 기적의 공간, 그 자체”라는 말로 영화 속 인물들의 지극함에 대한 존경과 감동을 표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어느새 자신만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모호한 삶의 물음을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 깃든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영화 곳곳에 스며든 불교의 교리들을 삶 속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에 비추어 대입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한 일종의 ‘수행 기록’이기 때문이다.

▲저자 이안은?

서울대에서 미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서 영상문화이론과 영화학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KBS, YTN, 레디앙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공회대학교에서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 독립다큐멘터리 〈나의 노래: 메아리〉를 제작한 프로듀서, 예술영화 전용관인 ‘영화공간 주안’ 관장 겸 프로그래머, 그리고 서울국제실험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주민영화제, 세이브더칠드런아동권리영화제 프로그래머를 거쳐 지금은 춘천SF영화제 운영위원장이자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도〉에 ‘영화, 불교’라는 칼럼을 써오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김씨 표류기를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19로 격리의 시대를 살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 ‘독불장군’이라고 잘못 쓰이는 이 말은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말이다. 나면서부터 부처인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격리의 시대에 ‘독존’의 깨달음으로 다들 해탈하시기를.”

〈김씨 표류기(2009)〉중에서

“모든 것은 흘러가고, 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으며, 시간은 굴레가 아니라 흐름이기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자가 된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 [닥터 스트레인지]는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도 불가의 가르침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오락물 안에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영화다.”

〈21세기의 불제자–닥터 스트레인지(2016)〉중에서

2022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개막식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일정 | 2022. 9. 29-10. 2(4일간)
장소 | SETEC 서울국제무역전시컨벤션센터
*온라인박람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운영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 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리추얼(Ritual) 상품 및 서비스 전시
· 사찰건축, 전통 및 불교공예, 차, 다기, 문화상품, 생활상품, IT 및 서비스 등
제10회 붓다아트페어 Buddha Art Fair
· 전통·불교미술부터 불교철학을 담은 현대미술까지, 미술 오픈마켓
· 수산문도회, 한국불교미술공예협동조합의 단체전
· BAF청년작가공모전 수상작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릴레이 법문
·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님들과 연사들의 법문과 강연
주제전
· 괘불 미디어아트 ‘행자즉불, 수행자가 곧 부처라’ 전
· 임석환 불화장 특별 초대전 ‘나는 붓다를 보았다’전
· 사찰 제작 수행 용품 초대전 ‘108사찰콘텐츠’전
국제교류전
· 중국, 대만, 네팔 등의 특색 있는 공예품 및 상품 소개
라이브커머스 & 크라우드펀딩
· 참가업체의 상품들은 온라인에서 보고 구매하는 라이브커머스와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 수상작들의 크라우드 펀딩 진행
관람문의 > 2022서울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
T. 02. 2231. 2013 W. www.bexpo.kr E. bexpo@daum.net

지금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

문의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사무국
전 화 02-2231-2013
이 메 일 bexpo@daum.net
홈페이지 www.bexp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expo

구담 스님, 첫 독립장편 무용극영화 제작

장편독립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9월 14일 나무카페서 제작발표회 개최
2023년 1월 첫촬영 · 10월 시사회 예정
현대무용 · 영화적 서사 결합 새 형식
윤회 주제 · 49재 소재 무대서만 촬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구담 스님이 9월 14일 서울 조계사 내 나무 카페에서 독립 장편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배우 신무길, 최주영, 구담 스님, 배우 남가현, 안무감독 문지애)

독립영화 감독인 구담 스님이 9월 14일 서울 조계사 내 나무 카페에서 독립장편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구담 스님을 비롯해 안무감독 문지애, 200: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출연배우 신무길(제바 역), 최주영(선아 역), 남가현(수인 역)과 주요 스텝들이 참석했다.

2023년 1월 크랭크인과 10월 시사회 예정인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런닝타임 80분)'은 주인공인 수인의 49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생과 환생을 통해 거듭나는 성찰의 이야기로, 전체 촬영을 무대 위에서만 진행한다. 이번 영화는 국내 최초로 현대무용과 영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인 '무용극영화'로, 기존의 댄스필름이나 스크린 댄스 등이 배우의 대사나 영화적 표현 없이 무용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영화는 현대무용과 영화적 서사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이다.

수인이 전생에 공주였을 때 공주를 사랑했던 광대가 공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시 환생해서는 구렁이로 변한다. 그리고 수인과 함께 다른 모습의 많은 생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는 생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주체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영원불멸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불교, 극, 무용이라는 이질적 요소의 융합으로 새롭게 구현한다. 가시적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물 관계의 인과성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불교의 윤회사상을, '극'이라는 실험적 공간을, 무용이라는 관계성의 기제를 유기적으로 조합했다. 다른 시간대의 인연이 옴니버스처럼 이어지며 시공간을 뒤틀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사랑과 희생은 뒤틀어진 시공간을 뛰어넘으며 큰 울림을 준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근원적 가치를 무용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 중심의 새로운 영화기법을 선보인다.

"무대에서의 무용은 증발하지만 영화에서의 무용은 시간으로 저장된다. 아주 작은 시선이동 한 번이 백 마디의 대사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다. 움직임은 이성보다는 본능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음성언어와는 다르게 직관적이다."

문지애 안무감독은 49재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속의 인물들을 긴 안목으로 연결, 압축했을 때 발생하는 그 사의 서사를 포착하고자 했다고 한다. 다른 시간대에 살았던 생을 소환하여 같은 시간대에 재배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생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연의 연결고리를 무용으로 표현한다. 또한 무용과 영화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몸의 움직임, 안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안무를 선보인다.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은 불교영화의 미래적 대안인 불교예술영화를 위한 것이면서, 현재 불교영화 중흥을 위한 불교 기획영화 필요성에 의해 기획됐다. 구담 스님은 "대중적인 상업영화 제작을 위한 대규모 제작비의 투자가 어려운 현실에서 작품성 있는 저예산 독립장편영화의 활발한 제작이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은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불교예술영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무용을 새롭게 해석한 춤의 미학과 영상의 미학이 조화를 이룬 흥미로운 영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화의 연출과 제작자인 구담 스님은 지금까지 총 다섯 편의 독립단편영화를 만들어 시사회, 방송, 영화제를 통해 선보여 왔다. 지금까지 구담 스님의 작품은 주로 30분 내외의 단편으로, 경전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오늘날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이번 영화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영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장편이다.

구담 스님의 첫 작품인 '두 번째 화살(2018)'은 〈아함경〉에 나오는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한 삶과 죽음의 성찰을 주제로 했으며, 두 번째 작품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명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트라우마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고전 〈삼국유사〉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억눌린 자아의식에 대한 성찰을 그렸으며, '오월의 만다라(2021)'에서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불교를 배경으로 출가수행자의 사회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작인 '홀로 빛나는 어둠(2022)'은 현대 영화시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등 그동안 불교를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시도해 왔다.

안무감독 문지애는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이며, 김복희 무용단 대표이자 수석단원이다.

구담 스님은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의 제작 고불식을 '구담 스님의 찾아가는 불교영화 이야기 100일 순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100일 동안 전국방방곡곡을 찾아 불교영화 법회, 특강 등으로 불자들에게 불교영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한다. 그동안 제작한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불교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법석을 마련함으로써 불자들에게 불교예술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불교영화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고불식을 대신한 이번 순례는 불교영화 제작을 위한 후원을 유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순례지는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구담 스님의 찾아가는 불교영화 이야기 100일 순례'에 동참하고 싶은 사찰과 소임자는 영화 제작 담당자(010-4656-18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

2022 청량사 산사음악회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

미스트롯2 출신 가수 출연
양지은 김의영 은가은 등


2018년 청량사 산사음악회 모습.

청량산 청량사는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에서 2022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미스트롯2 출연 가수들이 출연한다. 진을 수상한 양지은을 비롯해 매콤 보이스 김의영, 모든 장르를 섭렵한 은가은, 국악인이자 미스터트롯 출신인 강태관이 흥겨운 트롯의 무대를 펼친다. 이어 소프라노 박선영, 테너 오상택 그리고 이종만이 지휘하는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단장 손현숙, 반주 류지영)이 출연해 다양한 음성공양을 선보인다.

청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그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준비했다"며 "모두가 힘들고 고단할 때 안방에 웃음과 휴식을 선사했던 트롯 열풍의 주역들을 모시고 한바탕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름으로 산문을 지은 청정도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정함과 고귀함, 신비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송광사 16국사 중 한 분인 법장 고봉선사가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054)672-1446. 박재완 기자

제1회 연울림 앙상블 정기연주회

10월 1일 오후 7시
부산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김소라 등 2021년 8월 결성
2022년 1월 첫 쇼케이스


2022년 3월 부산 관음사에서 열린 '틱낫한 스님 막재' 추모공연 모습.

불교중창단 연울림(지도법사 도진)의 첫 공연이 10월 1일 오후 7시 부산 동해문화회관 대극장에 열린다.

연울림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전문 음악가들이 찬불가를 새롭게 작곡해 선보이고 불음을 노래하기 위해 창단한 불교중창단이다.

연울림 단원은 김소라 소프라노, 김선미 소프라노, 성민기 테너, 김기환 바리톤, 작곡가 강현민이며, '연울림'은 '노래하는 인연으로 마음을 울려 화합'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연울림은 공연에서 법정 스님의 시 '소창청기'와 담화림 스님의 시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고산 스님의 시 '열반의 노래' 등의 새로운 찬불가를 선보이며, 이 외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파파게나 파파게노', 오페라 '춘희' 가운데 '프로방스의 대지와 바다' 등 전통 클래식 곡도 선보인다.

연울림은 2021년 8월에 결성해 2022년 1월 13일 '문화공간 목' 쇼케이스 콘서트를 통해 대중과 만났다. 이후 '틱낫한 스님 막재'와 경남 사천 청룡사 '겹벚꽃 연울림 앙상블 초청 음악회', 부산 당리 관음사 'LA 영화스님 초청 법회' 등 불교행사에 출연해 공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승 위기 '땅설법', 보존 청신호 켜지나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 사업 대상자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승 위기인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보존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 대상으로 삼척 안정사 '땅설법' 등 21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은 지역의 가치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각 지역 무형유산 100종목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별로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3년 동안 전승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 주체는 역사, 전승현황, 주변문화 관련 조사 · 연구를 비롯해 현황 및 전승과정 영상기록화 전승자 발굴 · 육성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공모에 총 12개 시 · 도에서 54개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사업 타당성 및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최종 21건이 선정됐다. 이 중 불교 무형유산은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이 유일하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땅설법, 국민공모로 선정 '쾌거'
동아시아 유일 속강, 가치 높아
3년 동안 年 최대 2억 원 지원
"보존위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삼척 안정사 땅설법 시연 모습.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은 본전 △석가모니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목련존자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등 5종과 별전 △만석중증도기 △안락국태자경 △태자수대나경 △심청효행록 △삼한세존일대기 △위제희부인만원연기 등 6종이 있다. 본전 · 별전 모두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백중, 수륙재 등서 설행됐으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이다. 다여 스님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으로부터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이 같은 1인 전승 상황은 땅설법 보존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땅설법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 대상자 선정은 땅설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땅설법을 연구하고 있는 김형근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교수는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는 시 · 도나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전승단체로서 자립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 선정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상례 모든 것을 담아내다

정오 스님 · 이성운 박사, '한국의 불교상례' 발간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조(敎祖)의 독자적인 사상과 교리가 가장 먼저 우선돼야겠지만, 그 만큼 중요한 것이 의례이다. 독창적인 종교 의례는 해당 종교만이 가지는 문화의 소산이자 사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을 대하는 의례에서는 각 종교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교 상례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상을 담아내고 있을까.

한국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스님과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교수가 공저한 〈한국의 불교상례〉는 이 같은 궁금증에 해답을 전한다.

저자에 따르면 불교의 상례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망자의 몸을 처리하면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더 나은 세계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례행위가 불교 상례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상례〉를 불교 전통의 '다비작법'이라는 표현보다 '상례'라는 일반용어를 채택해 저술한 이유도 여기 있다.

저자들은 1935년 발간된 〈석문의범〉을 바탕으로 19세기 초 백파 긍선(1767~1852)의 〈다비설〉과 〈작법귀감〉, 19세기 후반 해인사에서 간행된 〈다비작법〉을 참고해 재정립했다. 이를 통해

△임종의식 △수계의식 △정화의식 △착복의식 △정좌와 입감 △발인제식 △장법의식 △영혼의식 △칠칠재의로 이어지는 의식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풀어 해설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상례라고 하면 탈상 이전까지의 의례인데, 칠칠재 때까지는 불교 상례라고 보고 칠칠재 형식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체 의식문 원문에 한글음을 달아 가독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따라하며 의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 책의 강점이다.

이에 대해 정오 스님은 "49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를 다시 제시한 이유는 사후 칠칠재의 재공은 망자보다 산자가 공덕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재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오 스님은 "책에는 전통 다비문의 명정서규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종사 다음 자리에 염불인(念佛人)이 있고, 관을 사용할 때도 '감'으로 모시는 모습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염불 수행이 지고지선(至高至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지리산 쌍계사 · 불일폭포 '명승'된다

문화재청, 9월 14일 지정예고
"역사 · 학술 · 자연 등 가치 커"


(신라 성덕왕 23년)에 옥천사로 창건하고 정강왕 때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벽암 대사가 1632년(인조 10년)에 중건한 것이 지금까지 이른다.

한편, 문화재청은 역사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경상남도 하동군의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문인묵객(文人墨客)들이 예찬하여 수많은 시문, 여행기 등을 남긴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고려 제21대 왕 희종이 승려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에게 '불일보조(佛日普照)'란 시호를 내린 것에 유래해 지눌이 수도하며 머문 곳 일원을 '불일'이라는 명칭을 붙여 불일폭포, 불일평전, 불일암이라 부르고 있다.

불일사상의 요람인 쌍계사는 724년

선 · 교 대종장 환성 지안 조명

통도사 · 한국선학회,
9월 30일 추계학술대회


환성 지안(1664~1729, 사진) 스님은 태고 보우에서 청허 휴정으로 이어진 선의 계맥을 이어낸 선사이자 당시 화엄학의 일인자로서 선교를 아우른 당대 선지식이었다. 환성 지안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와 한국선학회(회장 정도)는 오는 9월 30일 오후 1시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환성 지안 스님의 삶과 수행'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여는 학술대회에서는 환성 지안 스님의 생애와 수행, 선시 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조선 후기 불보사찰 통도사와 순교승 환성 지안'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환성 지안의 선리이해와 그 전승'을,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원법 스님은 '환성 지안의 선시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통도사는 "환성 지안 선사의 주석도량으로서 통도사는 선사의 삶과 수행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려 뇌원차-천태사상 상관관계는?

천태종, 9월 21일 천태지관차법전승 첫 학술대회

고려의 뇌원차는 공신의 상례와 송(宋)에 예물로 보낼 정도로 귀하게 여긴 차였다. 고려 정종(定宗) 연간에 거란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뇌원차의 진가가 드러났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열반 967주기를 맞아 천태지관 사상과 고려 뇌원차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천태종 산하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이사장 무원, 총무원장)는 9월 21일 오후 1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제1회 천태지관차법전승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의천대각국사 뇌원차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대각국사의 천태지관사상과 고려 뇌원차의 관계를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석환 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이 '의천대각국사의 뇌원차 연구'를, 의천연구가 이병욱 씨가 '원효의 사상 계승한 의천'을, 허흥식 한국학연구소 명예교수가 '고려 초의 내원차 전승'을, 마스인 동아시아다도연구원장이 '한국 고려시기의 왕조공차'를, 이기운 동국대 학술원 교수가 '천태지관 사상의 현대적 전개'를 각각 발표한다. 천태종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천태지관 수행과 의천대각국사의 천태사상이 고려 뇌원차의 전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피고 선차의 정맥이 어떻게 전승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2

▶ 83회 예고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보드가야로 가면서 우빠굽따 장로에게 설법을 듣는다. 태자는 웃따까 라마뿟다 선인과도 헤어진다. 선인들에게 실망한 태자는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우루웰라 부근의 고행림 아자빨라나무 밑에 갈대를 깔고 앉는다.



아쇼까왕, 보드가야를 순례하다

빠딸리뿌뜨라성에 붉고 흰 부겐빌리아 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안개가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건기가 돌아왔다. 호위대장은 아쇼까왕 일행을 경호하기 위해 군사들을 밤낮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왕에게 순행준비 결과를 보고했다.

"대왕코끼리는 잘 훈련돼 있습니다. 대왕님의 일산도 이미 완성해 놓았습니다."

황금과 은, 수정이 박힌 일산은 아쇼까왕만 쓸 수 있었다. 보석으로 장식한 일산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다. 황금과 수정이 햇살에 반짝였으므로 멀리 있는 백성들도 왕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숙였다.

그때 룸비니로 미리 정찰을 나갔던 기마대장이 아쇼까왕 집무실로 들어왔다. 기마대장은 마우리아국 변방에 분쟁지역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조장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룸비니를 다녀온 길이었다.

"대왕님이시여, 룸비니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사정은 어떻소?"

"룸비니는 한적한 동산입니다. 고따마 붓다께서 태어나신 곳에는 살라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마야부인이 목욕한 뿌스까르니(Puskarni)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이니까 산기를 느낀 마야부인이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셨겠지."

"가지고 가실 석주는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기마대장이 보고한 석주는 부드러운 사암 재질이었으므로 글씨를 음각하기에 용이했다. 아쇼까왕이 룸비니에 들르면 순례기념 행사 일환으로 칙령을 새길 계획이었다. 아쇼까왕이 현지에 가서 지시할 칙령의 글씨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브라흐미(brahmi)문자일 터였다.

"대장, 순례지를 바꾸려고 하오. 나는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룸비니보다 태자께서 붓다가 되신 보드가야부터 순례하고 싶소."

"무슨 이유 때문이십니까?"

"붓다가 되신 곳이 어떤지 더 궁금하오. 그러니 대장은 보드가야를 정찰하고 오시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은 기마대장이 나가자 이번에는 경비대장을 시켜 아쇼까라마에 있는 우빠굽따를 불렀다. 우빠굽따는 즉시 경비대장 안내를 받아서 아쇼까왕 집무실로 왔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장로시여, 나는 보드가야로 갈 것이오. 싯다르타 태자가 어떻게 붓다가 되었는지 그 현장을 순례하고 싶소."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저도 대왕님께서 싯다르타 수행자께서 붓다가 되신 성지를 먼저 가시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잘 되었소."

"싯다르타 수행자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 삡팔라(Pipphala)나무부터 참배하셔야 합니다. 룸비니에서 보드가야까지는 싯다르타의 수행자시대이고, 보드가야에서 열반하신 꾸쉬나가라까지는 고따마 붓다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소. 나는 싯다르타 시대의 이야기보다 붓다께서 어디서 깨닫고 또 무슨 가르침을 설했는지 알고 싶소. 나는 '담마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 순례하는 것이오."

"대왕님께서 순례하신 곳마다 불탑을 세우시면 붓다에 대한 믿음과 공경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오. 불탑을 세운다면 장차 태어날 백성들도 붓다에 대한 신심과 존경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를 만난 기쁨을 스스럼없이 말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적(敵)도 없으며, 잠부띠바(인도)의 모든 성(城)과 산, 바다를 얻고 모든 부(富)가 내 앞에 있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소. 그보다는 앞으로 장로와 함께 순례하는 일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오. 뿐만 아니라 나는 장로와 함께 순례하는 동안 깊은 공경과 믿음이 생겨날 것만 같소."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이 순례를 하는 동안 확실한 '담마의 실천자'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순례준비는 건기 중반 무렵에 마무리되었다. 룸비니로 가려다다가 보드가야로 순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아쇼까왕의 순례는 시찰 성격을 띤 순행과 달랐다. 순례일행 중에는 왕비 아상디밋따와 띠쉬아락시따도 들어 있었다. 정비는 아상디밋따였다. 마힌다 비구와 상가밋따 비구니도 순례에 나섰다. 아쇼까왕의 사위 악기브라흐마 비구와 외손자 수마나 비구까지 동행했다.

마침내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빠딸뿌뜨라 내성을 나와 남쪽으로 향했다. 보드가야로 가는 길은 이미 보병 수만 명에 의해 잘 닦여 있었다. 주요 도시로 가는 길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길은 큰 수레 서너 대가 교행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아쇼까왕은 우물이 있는 큰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자, 이동법당 수레로 가서 우빠굽따가 설하는 법문을 들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에게 고따마 붓다의 일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했다.

"대왕님이시여, 싯다르타 태자는 백마 깐타까를 타고 까삘라성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다음과 같이 서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많은 중생이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동법당 수레 앞에는 순례일행 모두가 모여 있었다. 아쇼까왕은 물론 왕비와 마힌다와 상가밋따 등 사문들과 군사 대장들이 우빠굽따의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경계를 서는 군사만 들판 멀리 있을 뿐이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백마를 타고 밤새 동쪽으로 달렸다. 새벽에야 어느 숲속에서 멈추었다. 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바로 내가 바깥세상이라고 생각하던 곳이고,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며, 사랑하는 깐타까와 헤어질 수 있는 곳이구나.'

태자는 곧 마부 찬다까에게 모자에 달린 푸른 마니보(摩尼寶)를 떼어주면서 말했다. 마니보는 태자임을 증명하는 보석이었다.

"이 마니보를 가지고 가거라. 돌아가서 부왕께 마니보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려라. '태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미 다 버렸으며, 또한 천상에 태어나려고 선업을 쌓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바른 길을 몰라 헤매면서 생사윤회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출가합니다. 나는 아직 젊지만 생로병사에는 정해진 때가 따로 없으며, 지금 젊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훌륭한 왕들은 나라를 내놓고 길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뒤 수행 도중에 세속 생활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내 결심도 그와 같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결심을 부왕께 전해라."

태자는 몸에 지니고 있던 보석들을 떼어 양어머니인 이모와 아내 아쇼다라에게 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찬다까가 울면서 돌아가자, 태자는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도 왕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보석을 때어낸 옷이라지만 수행자의 누더기에 비해 깨끗했다. 그래서 태자는 자신의 옷을 벗고 해진 옷과 바꾸어 입으려고 했다. 마침 사냥꾼이 나타나자 태자는 그의 낡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

남루한 옷으로 바꿔 입은 태자는 누가 보아도 숲속에서 정진하는 수행자 같이 보였다. 태자는 스승을 찾아서 계속 길을 걸었다. 이윽고 태자는 강가강 지류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 베샬리에 머물고 있는 박가바 선인을 만났다.

그런데 고행주의자 박가바 선인을 추종하는 브라흐민 출신의 수행자들은 태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기행과 고행을 일삼고 있었다. 태자가 박가바 선인에게 물었다.

"선인이시여, 무엇 때문에 고행하고 있습니까?"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 고행하고 있습니다."

태자는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다. 밧지족이 살고 있는 미띠라성에서는 양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선인도 있었다.

"선인이시여, 왜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다음 생에 복을 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태자는 그들에게 살아 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악행이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 중에 한 선인이 해탈을 구하는 태자의 마음을 간파하고, 베샬리 교외에 알라라 깔라마 선인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하여 태자는 그곳을 떠났다.

실제로 베샬리 교외에는 알랄라 깔라마 선인이 제자 3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태자는 그의 명성을 이미 듣고 있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밧지족의 일족인 릿차비인들의 도읍인 베샬리 부근의 숲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어 사는 곳이었고, 강가강 남쪽의 옛 마가다국 사람들과 달리 황색인종인 샤까(석가)족 사람들과 외모가 비슷했다. 태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수행주의자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들은 스승과 그의 동료들에게 알렸다.

알라라 깔라마도 태자를 환영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한 뒤 스스럼없이 대화했다. 태자는 알라라 깔라마가 선정에 들어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알라라 깔라마는 다른 교단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수행과 제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탁발이 아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의식주를 해결했다. 태자를 만난 알라라 깔라마의 나이는 120세였다. 태자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말했다.

"깔라마시여, 나는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싶습니다."

"여기 머무르시오. 그대와 같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우리와 같이 수행한다면 머잖아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오."

과연 태자는 그곳에 머무른 지 얼마 후 선정을 얻었고, 그 경지를 알라라 깔라마에게 말했다. 그러자 알라라 깔라마는 자신이 깨달은 무소유처(無所有處)라는 선정을 가르쳐 주었다. 무소유처란 무집착처란 말과 같은, 마음 안팎으로 무념무상의 고요한 경지를 말했다. 태자는 얼마 되지 않아 그 무소유처마저 도달했다. 그러자 알라라 깔라마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와 같은 수행자를 이 늙은 나이에 만나다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소. 내가 수행하여 얻은 진리를 그대도 얻었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소. 앞으로 이 교단의 수행자들을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가르칩시다."

알라라 깔라마의 말은 교단에서 자기와 같은 스승으로 태자를 예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태자는 무소유처 경지에 만족할 수 없었다. 무소유처는 생사윤회를 해결하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태자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의를 뿌리치고 다시 길을 떠났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⑱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성립, 홍인(弘忍)

▶ 한줄 요약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창립자인 도신의 동산법문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제자가 바로 홍인(弘忍)이다.



중국禪의 센세이션 '동산법문' 알리다

수·당(隋·唐) 교체기에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창립자인 도신(道信)은 황매(黃梅)의 쌍봉산(雙峰山)에 선림(禪林)을 창립하였다. 이는 당시에 형성된 참다운 수행자는 마땅히 깊은 산에 머물며 은둔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은둔잠수(隱遁潛修)'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전란으로 인하여 도적들이 창궐하여 사찰까지도 약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큰 사찰이 없었던 쌍봉산에 은둔하였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속고승전〉의 전기에 "내가 입산한 3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도를 배우려는 자가 멀다고 오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기술하듯이 도신의 도량에는 대중이 500여 명, 혹은 700여 명의 승려가 운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도신은 기존의 불교에 없었던 새로운 작법(作法)을 창안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대중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방법이었다. 본래 불교에서는 승려들의 노동을 계율로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는 신도들의 재시(財施)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쌍봉산의 도량은 지역적인 문제로 5백, 혹은 7백에 달하는 대중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보시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겠다. 다른 측면으로 이러한 대중들의 노동은 신도들의 재시에 의지하지 않고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도신의 사상에 따른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신은 이와 같은 대중들의 근기를 네 부류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 역시 중국선에 있어서 최초로 출현한 대중교육이라 하겠다. 한편 대중들이 운집하여 낮에는 노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수선(修禪)하는 생활로부터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규구(規矩)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쌍봉산 도량의 규범들이 점차 발전되어 후대에 백장(百丈)에 이르러서는 이를 이른바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정리됐다.

이와 같은 도신의 도량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제자가 바로 홍인(弘忍, 602~675 혹은 601~674)이다. 도신의 제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도신을 적전(嫡傳)한 이는 오직 홍인만이 언급된다. 특히 도신의 도량에 대중들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홍인이 동산(東山)에 새롭게 사찰을 창건하였기 때문에 '동산법문'이라는 명칭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부터 보자면, 홍인은 도신의 선법을 더욱 널리 알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에 '동산법문'은 도신-홍인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홍인의 생애와 그 사상, 그리고 동산법문의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홍인의 전기는 〈전법보기(傳法寶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으로부터 〈송고승전〉, 〈조당집〉, 〈경덕전등록〉 등 거의 모든 승전에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선종의 출현에 절대적인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수많은 전설 등이 부가되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홍인의 입적 후 40여 년 후에 편집된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를 통하여 그의 생애를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도신의 선을 계승한 홍인 선사가 동산법문을 설한 오조사 전경.

중국 선종 실질적 창립자 도신 제자
홍인 문하서 중국선종 多 분파 출현
평생 승·속 교화 춘추 74세로 입적

그에 따르면, 홍인은 속성이 주(周)씨이고, 황매현(黃梅縣) 출신이다. 홍인의 출가에 대해서는 7세, 혹은 12세, 13세 등 전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려서부터 도신을 사사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신이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 주석했을 때부터이니, 도신이 황매의 쌍봉산에 도량을 창립한 일(624)은 홍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하겠다.

〈전법보기〉에 실린 홍인의 전기에는 "성품은 말이 적고 침착하였으며, 도반들이 놀려도 상대하지 않았고, 평소에 노동에 힘쓰며 몸을 낮추어 남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에 도신 선사가 법기(法器)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며, 또한 "낮에는 스승의 심부름에 자취를 파묻었고, 밤에는 좌선하여 새벽에 이르도록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기를 해를 거듭하였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앞에서 언급한 도신 도량의 노동과 수선을 병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능가사자기〉에 "노동에 힘써 봉사하였기 때문에, 도반들이 먹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구절로부터 도신의 도량은 오히려 풍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5백, 혹은 7백의 대중이 농사를 짓는다면, 자급자족을 넘어 오히려 커다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고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동산법문에 더욱 많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결국 중국 선종이 출현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역대법보기〉에는 홍인이 도신 선사를 30여 년을 모시고, 법을 인가받아 빙무산(憑茂山), 즉 '동산'에 사찰을 창건하여 이주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전기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들이 많아져서 동산에 사찰을 창건했지만, 홍인이 이주한 시기는 도신의 입적(651) 이후로 추정된다. 실제로 도신의 도량(현 四祖寺)과 동산의 사찰(현 五祖寺)은 걸어서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

〈전법보기〉에는 홍인이 도신의 인가를 받은 이후 그 문하에 귀의하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두 배가 되었으며, "10여 년 동안에 승속을 합하여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천하에 십중팔구가 되었다."라는 조금 과장된 문구가 보이는 것처럼 홍인의 문하에 수많은 이들이 참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인은 이처럼 평생을 승속을 교화하였는데, 〈전법보기〉에는 상원(上元) 2년(675) 8월 8일 "아무 말도 없이 고요히 앉는 채로 춘추 74세로 입적하였다."라고 한다. 홍인의 입적 시기 역시 전기마다 차이가 난다. 〈능가사자기〉에는 함형(咸亨) 5년(674) 2월 16일, 〈조당집〉에는 627년 2월 26일, 〈송고승전〉에는 675년 10월 23일 등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홍인의 이른바 '십대제자'들도 전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상위는 바로 후대에 동산법문의 위상이 선종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계파에서 자파에 유리하게 편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홍인의 선사상은 어떠한가? 홍인의 저술로 〈최상승론(最上乘論)〉(〈修心要論〉이라고도 칭함. 大正藏48 所收)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홍인의 저술이 아니라고 알려져 그다지 중시되지 못하다가 근대 돈황(敦煌)의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홍인의 저술로 판명되어 명확하게 홍인의 선사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상승론〉을 중심으로 홍인의 선사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최상승론〉에는 "법요(法要)를 알고자 한다면, 수심(守心)이 제일(第一)이다. 이러한 '수심'은 바로 열반(涅槃)의 근본이고, 입도(入道)의 요문(要門)이며, 십이부 경전의 종(宗)이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조(祖)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는 홍인의 법요(法要)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수심'은 어렵지 않게 스승인 도신의 '오문선요(五門禪要)'의 마지막인 '수일불이(守一不移)'로부터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신은 '오문선요'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심체(知心體)'와 '지심용(知心用)'을 시설하여 '심'의 체용(體用)으로부터 출발하고, '상각부정(常覺不停)'과 '상관신공적(常觀身空寂)'의 반야공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일불이'로 전개했지만, 홍인은 곧바로 '수심'으로 축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상승론〉은 바로 이러한 '수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아홉 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논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상승론〉에서는 이 '수심'을 "수진심(守眞心)" "수본진심(守本眞心)" "수아정심(守我淨心)"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바로 '수본진심'이다. 특히 최종적으로 "천경만론(千經萬論)이 '수본진심'을 넘지 못하며, 그 핵심[要]이다."라고 결론을 이끌었다. 따라서 도신의 선사상적 핵심을 '수일불이'라고 한다면, 홍인의 선사상적 핵심은 바로 '수본진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신이 창립하고, 홍인이 계승한 '동산법문'은 선종의 성립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승속을 합하여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천하에 십중팔구"라는 기사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당시 불교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홍인의 문하에서 중국 선종의 모든 분파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홍인의 제자 가운데 신수(神秀)는 '북종선(北宗禪)'을 창립하였고, 혜능(慧能)은 바로 '남종선(南宗禪)'을 열었다. 그리고 홍인의 제자인 지선(智詵)의 문하에서 '정중종(淨衆宗)'과 '보당종(保唐宗)'이 출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자인 법지(法持)는 '염불선(念佛禪)'을 제창하였고, 선습(宣什)은 '남산염불문선종(南山念佛門禪宗)'을 창립하였다.

따라서 중국선 가운데 그 이전에 발생한 달마(達摩)-혜가(慧可) 계열의 능가종(楞伽宗)과 우두 법융(牛頭法融)의 '우두종(牛頭宗)'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파가 동산법문의 홍인 문하로부터 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후대에 우두 법융을 도신의 사법제자로 조작하였고, 또한 달마-혜가 계열의 능가종 역시 동산법문과 연계하였다고 하겠다. 실제로 동산법문과 우두종, 능가종은 서로 다른 계열이며, 그 선사상 역시 동일한 틀로 배대할 수 없는 이질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러나 후대에서 그들을 모두 하나의 법계(法系)로 조작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상이 혼재하여 더욱 다양성을 확대하였지만, 이른바 뱀과 용이 공존하는 '용사혼잡(龍蛇混雜)'이라는 부작용 또한 극심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쌍봉산에 선림을 창립한 도신 선사의 업적은 중국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도신을 계승하여 동산법문을 일으킨 홍인의 업적 또한 충분히 스승 못지않은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창성(創成)도 중요하지만, 수성(守城)은 더욱 중대하다. 중국불교의 역사에서 뛰어난 존숙(尊宿)이 그를 계승할 제자가 없어서 당대로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⑱ 화엄경칠처구회도



▶ 한줄 요약
혼란기였던 오대 시기에도 부처를 향한 신심은 여전했다. 둔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대형불화인 〈화엄경칠처구회도〉는 이를 보여준다. 〈화엄경〉의 7처9회, 7곳에서 9차례 설법한 내용을 담아낸 〈화엄경칠처구회도〉는 당시의 신심을 느낄 수 있다.

'화엄경' 모든 내용, 한 폭에 담다

나라가 혼돈한 시기에도 붓다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더욱 불타올라 문화의 꽃을 피워냈다. 지난 연재에 이어 중국 역사상 다섯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혼돈했던 오대시기에 그려진 〈화엄경칠처구회도〉(그림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화엄경칠처구회도〉는 둔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대형 견본화 중 하나로 현재 프랑스 국립아시아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이 그림에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불상의 자태는 풍만장엄하다. 필선은 세밀하고 유연하며 색채가 아름답고 구도도 치밀하고 엄정하다. 각 섹션의 상단과 두 면에는 아름다운 비천이 그려져 있는데 옷자락이 하늘하늘 가볍게 날리고 있다. 이 그림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천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여전히 색채가 선명하고 우아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는 둔황 회화 중의 최고 수준의 걸작으로 당시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화엄경(華嚴經)〉은 세 가지 주요 번역본이 있다. 이 그림은 우전국(于闐國)의 삼장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의거해 7처9회 즉, 붓다의 7곳에서의 9차례의 법회 장면을 묘사한 80〈화엄경〉을 한 매의 그림으로 압축 묘사한 흥미진진한 7처9회의 '화엄불화'라고 하겠다. 땅(地上)에서는 3곳(적멸도량, 보광명전, 서다림)에서 5번, 하늘(天宮)에서는 4곳(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에서 4번 설법했는데 땅의 보광명전 한 곳에서 3번이나 설법한 것은 보광명전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고 있다. 화면은 크게 3단3열로 구성됐고, 상 · 중 · 하단에서 설법하는 장면인데, 순서에 따라 △제1회 보리도량회 △제2회 보광명전회 △제3회 도리천회 △제4회 야마천궁회 △제5회 도솔천궁회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이며. 제7 · 8회는 같은 보광법당회, 제9회 서다림회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지면 한계상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화면의 구성 분포는 별첨했다. 9회분은 표처럼 순차적으로 배치됐음을 밝혀둔다.

화면은 퀼팅(quilting) 장식을 통해 9개의 장면으로 구분하였고, 각 장면은 본존 비로자나불 중심의 칠처구회이다. 비로자나불 양옆의 협시는 문수 · 보현보살과 그 뒤에는 수보리와 사리불의 두 제자가 있으며, 주위에는 법문을 듣는 보살중(衆)과 성중이 주존을 향해 공손히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1회 보리도량회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최초로 정각을 이룬 장면이다. 도량은 무량 오묘장엄하고, 금강좌상의 노사나불은 만덕(萬德) 원만하다. 시방세계 미진수의 보살은 물론 금강역사, 제신, 제천 등 각자 무량공덕을 갖춘 이들이 한 시에 모여들어 저마다 붓다를 찬양하며, 모든 화장 장엄세계 바다중의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로 붓다의 경지에 들어있다. 제1회 내용은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제1부터 '비로사나품(毗盧遮那品)' 제6까지다.

제2회 보광법당회는 붓다가 보광명전 연화좌에서 신변(神變)을 보이고, 시방 보살들이 모두 모여있는 장면이다. 문수사리보살은 붓다의 위신력을 계승받아 뭇 보살들에게 붓다의 명호를 설하고 있데, 중생의 각기 다른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여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2회 주요 내용은 문수보살 선설(宣說)의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제7에서부터 '현수품(賢首品)' 제12까지다.

제3회 도리천궁회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수미산 제석궁전으로 올라가는데, 제석 장엄 궁전에서 붓다를 영접해 자리에 앉히시고, 제천과 함께 붓다를 찬탄하는 장면이다. 제3회는 '승수미산정품(升須彌山頂品)' 제13에서부터 '명법품(明法品)' 제18까지의 내용이다.

> 中둔황 장경동서 발견된 대형 불화
> '화엄경' 7처9회 설법회 모습 담아
> 혼란기에도 붓다 향한 신심 확인돼

제4회 야마천궁회는 붓다가 야마천궁으로 올라가는데 야마천왕이 장엄전으로 붓다를 영접해 모시고 붓다를 찬양하는 장면이다. '승야마천궁품(升夜摩天宮品)' 제19부터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 제22의 내용이다.

제5회 도솔천궁회에는 붓다는 또 도솔천에 오른다. 도솔천왕이 장엄전에 붓다를 맞이해 붓다의 공덕을 찬양하고, 붓다는 좌정하고 있다. '승도솔천궁품(升兜率天宮品)' 제23부터 '십회향품(十回向品)' 제25의 내용이다.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는 붓다가 자재천궁 마니보전에 있을 때 제방세계 제대보살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 금강장보살은 붓다의 위신력으로 대지혜 광명삼매에 들어 제불의 칭송과 마정(摩頂)을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십지의 명칭을 사람들에게 설했다. 해탈월(解脫月) 등 제보살이 해설을 부탁했으며 붓다가 방광하며 신통력을 보이자 금강장보살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십지법문인 〈십지품(十地品)〉 제26을 연설하였다.

제7회 보광법당회는 붓다가 보광명전에 계실 때 보안보살이 붓다를 향해 보현보살이 삼매의 경지에 든 묘한 행적을 묻자, 붓다는 그에게 보현보살에게 직접 묻도록 하였다. 이때 대중은 보현보살을 보고 정중히 예절을 갖췄으며 보현보살은 비로소 신통력으로 나타나 10대 삼매의 깊은 법문십정품(十定品) 제27을 널리 설했다. 이어진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제37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붓다는 미간에서 빛을 비추니 이름하여 여래출현광(如來出現光)이다. 여래성(如來性)을 일으킨 묘덕보살은 붓다를 향해 대법을 물으니, 붓다는 또 보현보살 입에 빛을 비추니 보현보살은 곧 붓다의 십무량법 출현과 십무량 백천 아승지겁 성취를 널리 설했다.

제8회 보광법당회는 붓다가 보광명전에 계실 때를 서술하고 있는데, 보현보살은 불화장장엄삼매(佛華藏莊嚴三昧)에 들어 삼매로부터 보살의(菩薩依), 보살행 내지 붓다가 보여주는 열반 등 200개 문제를 보현보살은 일문십답(一問十答)하고 각각 2000법문을 설했다. 제불이 현전하여 찬탄하고 보현보살은 다시 보살 공덕행처 '이세간품(離世間品)' 제38의 게송을 강조하여 설하였다.

제9회 서다원림회는 붓다가 서다원림에 계실 때 문수 보현과 같은 오백 대보살, 대성문, 무량세주가 모여있었다. 붓다는 대자비로 사자빈신삼매(師子頻申三昧)에 드셨고, 장엄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모여 각기 신변(神變)을 드러내 공양의 경지에 이르렀다. 제대성문들은 부지(不知) 불견(不見)이다. 십대 보살은 붓다를 칭송하고 찬양한다. 보현보살은 이 사자빈신삼매의 10가지 법구를 연설한다. 붓다는 또한 각양각색의 신변, 각양각색의 법문, 각양각색의 삼매 등의 모습을 드러내고, 문수보살은 찬양하며 제보살은 수많은 대비법문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문수보살과 대중은 붓다의 남행을 알았으며 사리불존자와 육천비구 또한 붓다의 위신력으로 남행을 하게 된다. 그들은 복성동(福城東)에 이르러 장엄한 당파라림(幢婆羅林)의 대탑묘에서 법을 설하였는데, 이때 선재동자 등 2000명이 와서 정례하고 법문을 듣고 발보리심을 내었으며 그중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보살도를 구하여 칭송하고 가르침을 물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선지식을 찾아가 배움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선재동자는 남행하여 덕운비구와 미륵보살 등 53명의 선지식을 참방하여 수많은 감로법문을 들었으며 마침내 보현보살을 만나 보현보살이 제행(諸行)원해(願海)를 펼쳐보임으로서 결국 법계에 들었음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이 붓다의 공덕을 찬양한 '입법계품(入法界品)' 제39의 내용이다.

〈화엄경칠처구회도〉의 맨 아래 바다에는 큰 연꽃이 있고, 꽃에는 수많은 집이 있는데 이는 '연화장세계'를 의미한다.(그림②)

실차난타 역 〈화엄경〉 제8권에서 소개하는 연화장세계는 "이 향수 바다에는 큰 연꽃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광명 약향당(藥香幢)이 있다. 꽃은 장엄한 세계 바다를 그 안에 숨기고, 사방은 균등 평등하고 청정 견고하며, 금강륜산으로 둘러싸여 땅과 바다는 뭇 나무로 구분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각각 다른 화장 장엄세계의 바다 위에는 해변 위치와 유사한 수많은 채운으로 이루어진 우주로, 이는 선재가 보현을 참배할 때 본 대천세계이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그림① 둔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화엄경칠처구회도〉. 10세기 초에 조성됐다. 현재 프랑스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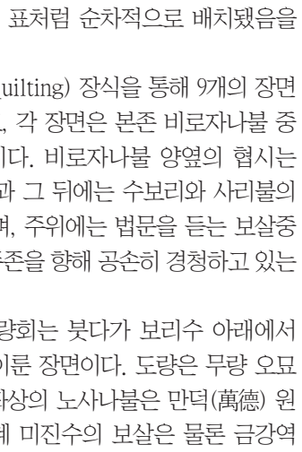
그림② 향수해 중앙 연화장세계 하단 부분도.

〈화엄경칠처구회도〉의 배치도.

제5회 도솔천궁회	제4회 야마천궁회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
제7회 보광법당회	제3회 도리천궁회	제8회 보광법당회
제2회 보광법당회	제1회 보리도량회	제9회 서다원림회

알림 본지 연재 '김선희의 변상도 바로 읽기' 중 '⑰둔황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가 법보신문 연재인 '오동환의 돈황벽화로 읽는 불교경전' 중 '법화경변④–막고굴 61굴 법화경변도'의 문장과 내용이 절반 가량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수용해 해당 연재를 중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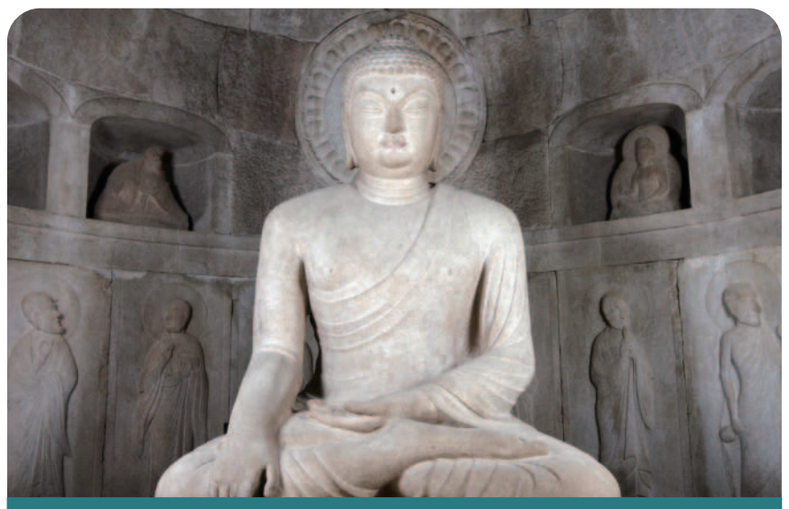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760쪽/값 38,000원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보리심을 일깨우는
대승 수행의 지침서!
게송으로 이루어진
입보리행론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쓰다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간명한 게송으로 전하는,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산티데바 원저/하도겸 편역/국판/240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속적 관심’이 성보 환지본처 이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⑦ 에필로그

충남 사찰 · 지자체 등 힘 합쳐서
국내외 성보 환수운동 전개 ‘눈길’
시민 중심 이천석탑 환수도 ‘귀감’

공진회 · 이왕가博 식민 정책으로
성보들 이전… 다시 조명 필요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본래 자리를 떠난 성보문화재들. 사진 왼쪽부터 서산 보원사지 철불,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오구라 콜렉션),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흥천사명 동종,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서산 보원사지 철불, 천흥사명 동종, 이천오층석탑,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지난 한 달여간 연재를 통해 조명한 제자리를 떠난 성보들이다. 국내는 4점이었고, 국외는 2점이었다. 이들은 모두 크고 작게 환수운동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충남의 힘…환수로 지역 정체성 확립

가장 눈길을 끌었던 환수운동 주체는 충남도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6년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충남국외소재문화재실태조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실태조사단은 현재 3기까지 운영을 이어가며 조사 연구와 보고서 발간 ·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충남도의 움직임에 충남 소재 지자체의 환수 움직임도 이어졌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2월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오구라 콜렉션)’ 등의 환수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윤용혁 공주향토문화연구회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현재의 소유권자가 전제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 혹은 공감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에 대한 치밀한 학술적 검토와 객관적 접근이 우선이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공적 기관 혹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산 보원사지 철불’ 환지본처에는 서산 보원사와 본사인 수덕사가 팔을 걷어 부쳤다. 보원사는 지난 2004년 12월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했고, 개원 이래 꾸준히 환수운동을 추진해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려철불 환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월로 고려철불 친견법회를 신도 대상으로 봉행했다. 2020년 6월에는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환수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보원사는 2020년 4월 광화문1번가에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지본처’를 정책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출토된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요청 시 실사와 협의를 통해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에는 충남도, 서산시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현재 3단계에 걸친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인 잔디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 단계다. 3단계 사업에는 100평 가량의 방문자센터 건립이 이뤄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흥사명 동종’은 충남도 · 천안시 · 수덕사 · 천흥사를 중심으로 환지본처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 도의원과 지역 불교계, 천안시청, 천안시문화원, 천안박물관이 중심이 돼 2020년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장답사와 관련 모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멈춤’ 상태로 있다.

그나마 천안시가 ‘고려시대 문화유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통해 천흥사지의 사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천안시는 2023년까지 천흥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4년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수운동 모범, 이천오층석탑

충남도의 사례가 사찰과 지자체 연계의 모범이라면,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시민 중심 운동의 모범이다. 이천문화원이 발간하는 지역문화잡지 〈설봉문화〉 제30호(2003)에서 알려지며 시작된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두 번의 시민토론회를 통해 2008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하 이천석탑환수위)가 공식 창립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천석탑환수위는 현지 조사를 비롯해 학교 순회 교육,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으며,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수 서명 캠페인을 통해 9개월 동안 시민 10만 9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위는 오쿠라문화재단과 환수를 위한 협의도 30여 차례 이어갔지만,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다.

실제적 결실을 아직 맺지 못했지만,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2009년부터 환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은 “시민의 집념과 열정으로 시작한 환수운동은 10만 명 서명으로 확산됐고, 마침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났다”면서 “환수위는 지금도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큼 모범적인 시민사회단체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년 이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환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세대 전승은 숙제다.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은 “이천오층석탑 환지본처는 길게 보고 가야할 운동이다. 세대 전승을 통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구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실무를 함께해 줄 직원 한 명의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나 시에서 급여 정도만이라도 보조나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성보 환지본처운동의 핵심은 ‘지속적 관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사찰, 시민의 삼박자가 맞을 때 ‘환지본처’의 원동력이 발생함을 인지해야 한다.

성보의 박물관行, 식민정책 때문

연재 과정에서 알 수 있던 것은 ‘왜 수많은 성보들이 자기 자리에서 박물관으로 혹은 타국으로 옮겨졌는가’에 대한 원인이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 장면이 있다. 하나는 1915년 당시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이다. 공진회는 한일합방 이후 5년 동안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명 개화를 명분으로 식민 지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일부 전각들을 전시장으로 개조했다. 중앙홀에는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 좌우 협시로는 석불입상 2구가 안치됐다.

석조문화재들은 야외 전시물로 전락했다. 당시 석조문화재는 광화문에서 미술관까지 총 6점이 전시됐다. 순서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이천 안흥사지 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등이었다. 미술관 옆에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부도와 탑비가 전시됐다.

본래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석탑과 불상 등 성보문화재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공진회’를 위해 이뤄진 무단 반출의 산물이다.

대한제국 황실이 최초로 설립한 박물관인 ‘이왕가박물관’도 일제강점기의 식민문화정책의 일부였다. 수집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건립이 추진됐기에 이왕가박물관은 발의 초기부터 유물 구입에 열을 올렸고, 4년 만에 1만 2000여 점의 소장품을 마련됐다. 실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타카다 큐고(高田久吾)가 1911년 2월 20일 850엔의 대금을 받고 불상을 이왕가박물관에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왕가박물관의 설립은 왕가를 앞세운 일제 통감부 · 총독부 문화정책의 전개였으며 실질적으로도 식민지 박물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목수현)”고 비판하고 있다.

공진회, 이왕가박물관과 같은 일제의 식민문화정책으로 수많은 성보들은 자리를 옮겨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거나 국외로 반출됐다. 해방 이후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인수인계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그대로 소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문화재전문기자 김태식 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은 “국가가 약탈하고 불법 점유한 문화재는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박물관은 약탈문화재를 불법 점유하는 곳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시 · 교육 등에 필요한 문화재들을 ‘대여’해서 전시하는 기관으로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보가 떠날 수 밖에 없던 이유. 이제는 다시 조명하고 고민해야 한다.

‘마음 달이 홀로 밝으니 …’

편찬자 보각, 대중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조아려 삼배 올립니다.

마지막 13판은 돈이 없어 유고로 남기려 했는데 빈도 가면 할 사람 없고, 12번 배포가 선원 중심이라 사부대중에게 전달 못해 아쉬웠는데, 보시로 문제가 해결되나 대중공양에 값을 매김(권당만원, 농협312-0193-6901-41, 계주:정임상)은 정법이 아니니 돈 없어도 신청하세요.

◈ 10월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되어야 마무리하고 동지절 경신일에 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8번지 501호 위 옥탑법당 보각스님

◈ 사찰명(신행단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택배에 필요), 신청부수, 입금액 기재해 편지주세요. (전화 010-2458-0379 있으나 이석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문자마저 서툴러 꺼두고 있음.)

◈ 내용 : 신심명, 법보단경, 증도가, 법성게, 천부경, 비파시불 이래 역대불조 전법게, 정법진언, 실참(수행 요령) 등 805면에 소신공양 자세로 소납 정성 모두 담았습니다.

◈ 12판과 다르나 돈이 없으니 선원, 강원, 율원도 신청하셔야 인쇄, 송부가 가능합니다. 군소종단 종도, 청신사, 청신녀도 신청, 정법으로 수행 금생에 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 소납 하직 인사에 가름하오니 부디 열심히 정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소서.

釋迦牟尼佛 瑞相受戒親法子 桓國沙門 曉瞰 釋普覺 謹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대승의 취지 달리 말하면 '中道'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㉟ 대승법

〈원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승만이여, 이 깊은 법을 방편으로 잘 지키어 보호하고 그릇된 법을 항복함은 매우 잘한 일이니라. 너는 지난 세상에 백천억 부처님을 모셨으므로 이러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훌륭한 광명을 놓아 대중을 두루 비추시면서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7다라수(多羅樹) 높이까지 올라가셔서 공중으로 걸어서 사위국(舍衛國)으로 돌아가셨다. 승만 부인과 모든 권속들은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시름없이 바라보면서 잠깐도 한눈을 팔지 아니 하다가 부처님께서 가시는 형상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여래의 공덕을 제각기 찬탄하고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승만 부인은 성(城)안으로 돌아와서 우칭왕(友稱王)에게 대승법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일곱 살 이상 된 여자에게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였다. 우칭왕도 일곱 살 이상 된 남자에게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였으므로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대승으로 향하였다.

〈강설〉 승만 부인이 부처님이 증명하시는 가운데 법을 다 설하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다. 지난 세상에 백천억 부처님을 섬겼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는 부처님은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 사위국으로 돌아가시고 승만 부인은 성중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이 공중으로 몸을 솟구쳤다는 것은 신통을 보인 모습이다. 흔히 말하는 육신통(六神通) 가운데 신족통(神足通)을 보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불법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 다라수(多羅樹)는 종려과에 속하는 야자수로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다. 15m 정도 되는 키를 가져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부처님이 찬탄한 대승법을 승만 부인이 우칭왕에게 전하고 왕과 부인이 7세 이상의 남녀를 각각 나누어 교화하였다는 내용이 특이하다. 하필 7세를 든 것은 예(禮)를 아는 기준 나이를 말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유교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성별의 윤리를 강조한 것처럼 성안의 7세 이상의 남녀를 대승법으로 교화하였다 했다. 이는 〈승만경〉이 대승법을 설한 경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말이다. 대승법이란 반야공 사상에 입각하여 자비와 회향의 실천을 위주로 가르치는 법문을 말하는 것이다. 〈중론〉에는 이렇게 설해 놓은 대목이 있다.

"부처님은 사견(邪見)을 끊고 불법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성문법 가운데 12인연을 설하셨다. 또 이미 성문법 닦기를 끝내고 대승심을 일으켜 수행하며 깊은 가르침을 받고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위해서는 대승법으로 인연의 모습을 설하였으니 말하자면 불생불멸, 불일불이 등과 필경공, 무소유 등이다."

이러한 대승의 취지를 달리 중도(中道)라 한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유를 밝힐 때 부파불교나 소승에서 실종된 중도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중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사견이 된다. 변견(邊見)이나 양변(兩邊)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중도를 잃어버리고 사견이 된다 하였다. 이 중도를 나타내는 말에 '쌍차쌍조(雙遮雙照)' 라는 말이 있다. 양변을 모두 차단하고 막으며 부정하는 것을 쌍차(雙遮)라 하고 양변을 모두 비추고 드러내며 긍정하는 것을 쌍조(雙照)라 하였다. 양자를 함께 부정하거나 함께 긍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릇된 견해를 물리치고 정견을 구하는 실천의 수단으로 쓰인 말이다. 가령 유(有)와 무(無)를 가지고 말하면 이 둘을 동시에 부정하면 비유비무(非有非無)가 되는데 이것이 쌍차이다. 반면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고 하면 이는 역유역무(亦有亦無)가 되어 쌍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를 실현한다 하였다.

우칭왕은 아유사국의 왕이었다. 〈승만경〉 경문에는 승만 부인이 코오살라국 바사닉(Prasenajit)왕의 공주로 아유사국으로 시집을 가 우칭왕이 왕비가 되었다고 설하고 있으나 용수(龍樹)의 〈지도론〉과 율장인 〈오분율〉에서는 바사니왕의 비였다는 이설(異說)도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생' 뜻 깨쳐야 괴로움서 벗어나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㊽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1. 인연 중 가장 소중한 부처님과의 인연

우리들의 삶은 항상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만약 인연이 없었다면 너와 나의 인연도 없을 것이며, '우리' 라는 인연도 없을 것이다. 특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연은 중생들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며 중생 스스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옷깃만 스치는 인연을 가지려고 해도 과거 5백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인연을 가지려면 과거 1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하룻밤을 같은 집에서 묵을 수 있는 인연은 과거 3천겁의 인연을 지어야 하고 한동네에 태어나서 사는 인연은 과거 5천겁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 한 집에 태어나는 인연은 과거 7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과거 8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1겁(劫)' 의 시간이란 우주가 한 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후에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들은 이처럼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오랜 인연에 의해서 현재의 삶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둑과 인연을 맺으면 도둑이 되고 부자와 인연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 누구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인연을 잘 선택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들의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과의 인연은 중생들을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無緣衆生 救濟不能)"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 ·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잘 지어 나아가야 한다.

백천만겁의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과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百千萬劫難遭遇]고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은 과거 생에 복이 많아서 오늘날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복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탈 · 열반을 증득하는 그날까지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잘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극한 믿음과 불퇴전의 노력으로 부처님을 신앙하며, 부처님 말씀에 따라 바라밀을 실천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우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생이 무엇인지? 왜 중생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깨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 · 열반을 증득하여 상락아정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들이 평소에 '중생'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이 중생아!" 라고 하거나, "아이고! 이 미련한 중생아!"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이 '중생' 이란 말의 의미나 쓰임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중생이란 무엇일까? '중생' 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부터 중생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들이 왜 중생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㉟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1

'버림'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라훌라야, 어떠한 물질이든지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거친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열등한 것이건, 수승한 것이건, 먼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세존께서는 오직 물질만을, 세존께서는 오직 물질만을 언급하신 것입니까?"

"라훌라여, 느낌도 마찬가지이고, 지각도 마찬가지이고, 형성도 마찬가지이고,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사문의 수행입니까?"

동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머리는 석자〔三尺〕, 목은 두치〔二寸〕라네."

입을 열어 혀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자의 목을 베어 버리니,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진다. 다시 무엇을 더 관찰하고 알아낸 것이 존재하겠는가. 여기에 다시 무엇을 얹는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일이니, 수행한다고 더 나아질 것이 없다. 바로 알아버리는 것조차 모자람인데 더듬더듬 알아낸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수행은 성과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밖의 대상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엇을 알았더라도,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알아낸 것은 아무 소용없는 개뼈다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네가 너라고 하는 모든 것에 너는,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관찰만을 하라고 하셨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 라는 어떤 말씀도 없이, 오직 '네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단박에 잘라 다시 붙지 못하게 하는 도리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붙여 버린다면 다음을 기약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량분별을 지어봤자 저울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기울게 되어 있으니, 올려도 기울지 않는 것을 가져와야 그와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수행은 얻으려는 그 한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무엇을 찾아 아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 라고 삼은 미혹 때문에 찾는 마음을 내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다. 그 찾는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혹에서 저절로 풀려나 함이 없는 온전함을 얻게 된다. 미혹하면 언제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어 붙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든 것을 털어 넣어 법 삼으려 하겠지만, 어찌 그런 것으로 있지도 않은 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버린다는 것은 '하는 것' 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 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그' 라는 것이 어찌 버릴 수 있는 물건이겠는가. 그렇다고 만약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찌 버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버리라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였기에 말하는 것이지 버릴 것이 있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버리라는 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관찰하는 것이다.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관찰될 때, 물질에서 느낌에서 지각에서 형성에서 의식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발견이라는 것이 빈 껍데기뿐이니, 다시 얻었다는 마음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나의 것이 있으면 수행을 하였다 하겠지만,
나의 것이 아니니 수행하였다 할 것이 없네.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하였던 모든 일들이
허수아비가 바람 따라 움직였던 것이었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추

영원한 청년도반 故 손안식 선배님

빛으로 돌아오소서.

모

- 故 손안식 선배님을 영원히 기억할 후배들 드림 -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4호 | 17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방편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무료 교육과 상담을 진행

의처증과 의부증, 악몽 빙의, 모든 신경성 질환에서 오는 여러 증상, 질병치유 심리학, 한의학과 철학, 정확한 원인 분석 치유, 부부문제 전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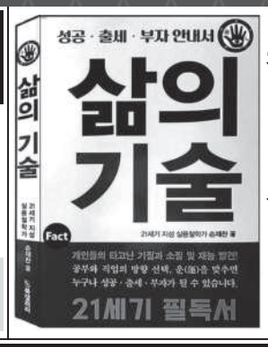
문자 010-4078-7810

天文神功 천문신공

• 백여권 저자 직접전수 •
• 최다목록 무료 검색 •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 역학수상 동방진인비결

02-907-5858
010-2693-7712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010-5049-1533

50~60대 비구니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운전, 컴퓨터로 사찰사무 할 수 있는 분

010-4968-3251

복지사 자격증 소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카카오톡 접수

010-8077-8075

부산 만덕사에서 살고싶은 분 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010-3840-4355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전수비 300만원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직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부산) 전화 : 010-4413-3377

• 기도스님
• 공양주
• 불목(사찰관리자, 처사, 부부환영)
• 평생 함께하실 사부대중을 환영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539-4(은적사)
전화 : 055)326-3353 010-8961-5489





영남 범음 · 범패 교육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 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532번지

문의 010-9421-9364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4호 | 18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전국 사찰 양도 접수 받습니다.

사찰 양도를 결정하셨다면
저희 다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및 상세내용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안내가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지 : 90평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양평, 임야 안내

●서울에서 1시간 거리(동남향)
●약 2,200평(계획관리+보존임야)
●명상과 더불어 조용한 전원생활
●향후 양평 ↔ 송파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투자성이 매우 좋은 저렴한 땅(평당 : 1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대지 600평, 건물, 법당, 탑, 산신각, 미륵불, 요사채 2동
●스님 노환으로 급양도 합니다
●시내와 인접해 있습니다
●가액은 상담후 결정

010-2366-2821

사찰(급)안내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 (150m)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도시가스, 난방,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9231-6825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건평 : 약 50평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가액 : 7천5백만원(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암 자 안 내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내 산세, 경치, 공기 맑고 수련하기 최고
●부지 : 1400평(봉화 시내버스 다님)도로옆
●대지 : 200평(마당 강자갈, 주차 15대)
●법당 15평, 산신각 6평, 정자, 그네, 요사채 25평, 콘크리트 건물, 큰거실, 큰방2개, 수리완벽, 지하수, 집기보시
●가액 : 2억5천만원

010-7144-7846

수양관(암자)급안내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공원 내
●대지 : 94평(뒤정상, 전망대)
●건평 : 40평(삼존불, 탱화 봉안)
●대학병원 5분거리
●가액 : 2억2천만원
●법당종, 가전제품 일체 시설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407-8034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김해시 내외로11번길 3-19(3~4층)
●3층 : 법당(시설완비), 스님방, 넓은주방, 화장실, 4층(복층) : 큰방1, 작은방2, 창고1, 복층복도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 및 가전제품 일체(1천2백만원) 스님은 몸만 들어오시면 바로 법회

010-5458-2955

사 찰 안 내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6, 7, 8층 사찰 임대
●각층 100평
●현재 사찰 운영중
●최상시설

010-5883-2255

사 찰 터 안 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귀사리 산56- 1
●대지 : 1,760평
●도로 및 토목공사 정비
●절터, 휴양지, 목장 최적지
●가액 : 2억원

010-7635-0201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안양 명학시장 2층 약 50평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법당, 주방, 침실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관리비 없음

010-5495-4678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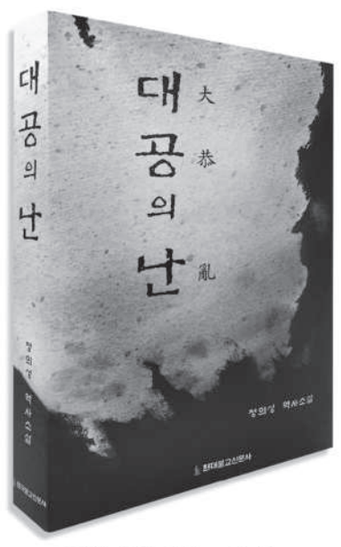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축하 광고 접수 받습니다

귀의 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진우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을
봉축 드리며 이에 아래와 같이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3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축하 광고
■ **광고크기** : 5단컬러 100만원, 1/2단컬러 50만원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8204**
jabi2018@naver.com, Fax 02)737-0698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지사지국 접수처 ❖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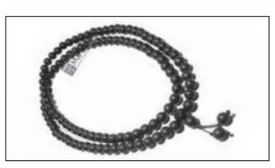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⑰ 차를 우리기 전에 할 일 5

모든 것 내려놓는 마음으로 마무리

7. 분향(分享)

신수가 차인이 차와 교류를 하는 수행 단계라면 기초 차식의 제7식인 분향은 차를 우린 사람과 손님 사이의 교류를 의미한다. 분향은 진심을 담아 손님을 청해 잘 우려낸 향기로운 차를 손님과 함께 나누는 차식으로 찻자리에 함께한 손님들과 기초 차식이라는 다도의 수련과정을 통해 완성된 차를 함께 나눔을 한다. 다인(茶人)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나눌 줄 알아야한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오는 행동과 마음의 속 깊은 정을 전하는 행위는 분향을 통해 정과 나눔의 마음을 공유하고 배워야 하는 과정이다.

〈맹자〉 양혜왕 하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여쭈었다.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하니 왕이 답하길 "혼자 즐기는 것이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왕의 답을 통해 나눔의 정신이라는 도리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혼자서 음악을 듣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음악을 듣는 아취를 따라 올 수 없음을 이야기 한다. 제왕의 대답은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즐거움은 함께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인생의 일정한 경지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차의 큰 매력은 예와 덕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고 더 나아가 차생활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차의 색향미를 나누고 차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차를 우리는 방법과 마시는 방법을 공유하고 다례와 다도를 통해 얻는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엔 반드시 스승이 하나 있다고 하셨다. 천하의 모든 차인은 나의 좋은 도반이며 덕 있는 스승이며 좋은 가족이다.

차는 혼자 마시면 신묘하고 둘이 마시면 아취가 있고, 여럿이 마시면 그곳엔 지혜가 있다고 하였다.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만 차의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며 더 많은 세대가 어울려 차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덕을 향유할 수 있다. 커피 등을 비롯한 현대의 많은 음료들에서는 찾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속에서 어떤 정신과 어떤 나눔을 과연 향유 할 수 있을까? 어린이부터 다도에 입문해서 가정에서 학교에 차문화가 전파 되어 차의 분향의 덕성이 퍼진다면 우리의 정신문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8. 방하(放下)

방하는 기초 차식의 마지막 단계이다. 방하란 차를 우리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사용한 다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찻자리의 정리이다. 흩어졌던 다구들을 정리하면서 찻자리 준비로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다. 방하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를 우리는 과정을 끝내고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이다. 찻자리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다. 지나간 일은 과거로 되돌리고 허물은 묻고, 마음속에 번뇌는 내려놓는 수신의 과정이다.

둘째, 거둔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다도구를 거두어들여 완벽하게 제자리에 정리한다. 다도구를 거두어들일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하여 차가 가지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다구들을 잘 정리하여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시작과 끝이 정돈된 아름다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옛 것을 정리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을 지워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습득할 수 있다. 찻잔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도를 깨칠 수 있게 된다.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우리 몸 안에서 과하게 축적된 지방과 스트레스는 심장을 압박하고 머리를 무겁게 만든다. 지나치게 많은 재물은 영혼을 피로하게 만들고 지나친 욕망과 꿈은 삶 자체를 억누른다. 삶 속에 지나친 문제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이다.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게 되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방하' 란 바로 몸과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음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하착(放下著, 내려놓음)과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아 두지 말라는 심무과(心無果)의 뜻이 다도의 마지막 단계 방하의 정신과 귀결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유이며 해탈의 길이다. 우리는 얼마만큼 삶속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가? 기초 차식의 마지막인 '방하' 의 의미가 차의 참 맛이며 차도 수행의 가장 큰 핵심이다. 차의 맛이 깊고 향기가 아무리 그윽한들 내 마음의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갈 수 있겠는가? 지금 차 한 잔 마주하며 무상하게 피어오르는 찻잔의 숨결을 느껴보자.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⑰ 태풍과 미네랄 공급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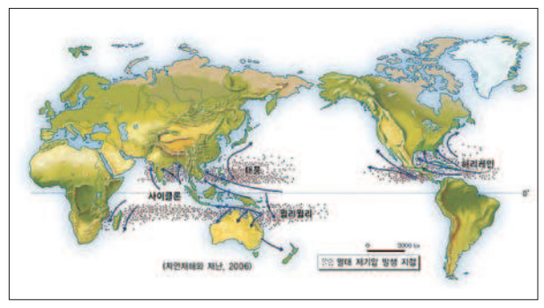
육지에 바다 미네랄 공급해 주는 '태풍'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 혹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태풍이 불어온다. 몇 번 안 될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오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큰 피해를 주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큰 피해를 겪다보니 태풍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구상에는 대부분 지역에 태풍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아시아에서 위력을 떨치는 것을 태풍(Typhoon), 북미와 멕시코 서해안의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를 중심으로는 사이클론(Cyclone), 호주에서는 윌리윌리(WillyWilly), 필리핀에서는 바기오(Baguio), 멕시코 서해안에서는 코르도나자(Cordonaza)라고 부른다.

이들 태풍은 종종 세계적인 뉴스에 등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럼 태풍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태풍이 부는 지역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사람 살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자연재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야 맞지만, 그곳은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것은 바로 태풍이 그 피해 이상의 좋은 것을 주기 때문이다. 태풍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지의 흙을 바꾸어 준다. 홍수가 난 후 그 지역에는 예외 없이 풍년이 든다. 그것은 홍수로 인해 토양이 바뀌고 상류의 비옥한 흙과 미네랄이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와 하류의 농토를 뒤덮기 때문이다.



태풍발생지역

이처럼 태풍은 토양을 바꾸어 준다. 다시 말하면 오랜 농사로 인해 토양에서 사라진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짓는 토양의 미네랄은 계속해서 소모될 뿐 공급이 없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태풍은 그 부족한 미네랄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의 땅속 깊은 곳의 흙을 파헤쳐서 하류의 농토에 공급한다. 그렇게 공급된 토양은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옛날 이집트에서는 홍수가 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였다. 지금 우리가 제발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미네랄이 공급되어 풍년이 들기 때문이었다. 홍수가 나서 상류의 미네랄이 풍부한 흙이 떠내려 와서 농토를 새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논에 객토라고 해서 모내기 전에 황토를 날라다 논에 뿌려주었던 것이 같은 이치이다.

둘째는 바닷물을 바꾸어 준다. 태풍은 바다 및 육지 온도를 조절해 주고 바닷물을 섞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바닷물은 다 같은 바닷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네랄이 많은 바닷물이 있고, 지역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도 있다. 또 적조로 인해 미네랄과 산소가 부족해 죽어가는 바다도 있다. 태풍은 이런 여러 종류의 바닷물을 엄청난 힘으로 섞어 준다. 그렇게 해서 바닷물은 새롭게 미네랄을 공급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나 건강한 바다가 되는 것이다.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나라 남해안의 적조 현상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진다.

셋째는 육지에 바다의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다. 태풍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다의 미네랄을 육지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태풍의 위력은 엄청나다. 보통 풍속이 33m/s 이상인 것에 태풍이라는 이름을 사용되는데, 그 크기도 엄청나고 에너지도 엄청나서 원자폭탄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된다. 이런 엄청난 힘으로 바닷물을 섞고 공기 중으로 퍼 올리고 그것을 육지에 쏟아 붓는 것이다. 그렇게 태풍과 함께 육지로 올라오는 바닷물 속에는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바닷물로 인해 육지에 미네랄이 공급된다. 중국에서 발원한 수천, 수만 톤의 황사 먼지가 태풍의 힘 없이도 수천 km를 날아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바다의 태풍이 바닷물을 퍼 올려 육지에 뿌리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육지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 그 결과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이 계속해서 씻겨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렇게 수천 수만 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사 및 과수 등을 통해 땅속의 미네랄은 식품에 포함되어 계속해서 소모된다. 그럴 경우 육지와 논과 밭에 미네랄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토양에 포함되어 있던 미네랄은 대부분 없어져야 정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물에서 섭취하는 미네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라는 식물에 공급되는 미네랄의 공급처는 어디일까? 물론 비료와 거름을 주고 있지만, 그 양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는 공급원이 태풍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나무가 무성한 열대 우림지역의 토양이 비옥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태풍 없이 너무 잦은 비로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서 표층의 토양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다. 겉보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땅일 뿐이다. 그래서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아간다. 울창한 열대우림을 불태워 그 불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유기물과 미네랄로 농사를 짓고나 후 다른 곳에 불을 질러 농사짓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토양에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그들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화전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태풍 없이 비만 내리는 지역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태풍은 큰 피해도 주지만 육지에 바다의 미네랄을 공급해 주고 바다를 바꾸어 주는 고마운 현상이기도 하다. 바다의 미네랄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뇌에서 7mm 종양…
제거했지만 두통·경련 시달려

2003년 한국 온 스리랑카 출신 사만씨…농장·축사·공장서 노동
계속된 통증에 진단 받아보니 뇌수막종…남은 병원비도 13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❸ 깨어남의 여정과 통찰

▶ 한줄 요약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다.

비난·의심은 내 마음의 그림자



애기보살,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거든 나가!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큰절 가까이 있는 원당암에는 재가자가 동참할 수 있는 큰 선원이 있다.

선방에서 참선하는 공덕이 매우 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나도 참선하러 원당암에 갔다.

수십 명의 재가자들이 한 철(100일 정도) 동안 안거-불교의 수행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기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법복으로 갈아입고 그날 밤을 새우겠다고 다짐했다.

예전에 삼천배를 하고 일타 스님께 받은 시를 화두로 들었다. 이를 어쩌나! 몇 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리가 저리고 아팠다.

참선과 다리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니,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읍내에 있는 포교당에 다니던 중학생 때였다. 어느 여름 수련회에 참가했을 때, 난생처음으로 발우공양이라는 것을 하고 '참선'도 했다. 얼마나 앉았을까! 마침을 알리는 죽비소리를 듣고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내 양팔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곧 두 팔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미끄러져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 버렸다. 두 다리에 감각이 없는 채 섰으니 균형을 잃을 수밖에.

시민선방에 앉은 그날도 어찌나 다리가 아픈지 바꿔 앉아야만 했다. 15분이나 20분이 지났을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허리까지 아팠다. 얼마나 자주 다리를 바꿨는지 "애기보살,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거든 나가!" 하고 어느 분이 나지막이 충고를 했다. 다리를 고쳐 앉을 때마다 법복이 스치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으니, 참선하는 데 방해가 된 것이 틀림없다. 참아보려고 했으나 다리 통증이 심해져, 안 바꿀 재간이 없었다. 또 부스럭거리면 야단맞을 것 같았다. '다리 통증 하나를 못 참는다'는 야유를 받는 것 같아 창피했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선방에서 나왔다. 그 후론 '참선'이라면 다리 아플 것이 미리 걱정돼서 앉기가 불안했고, 화두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나에게는 간화선과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쉬운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 "왼발로 걸을 때는 왼발로 걷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오른발로 걸을 때는 오른발로 걷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걸어라"는 것이다. 이것이 위빠사나라고 말했다. 따라 하기 쉬웠고, 뭔가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참선보다 위빠사나가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요즘도 걸을 때 주의를 발바닥에 두고 걷는다.

손가락을 까딱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대학원 전공 학생들과 일부 교수님이 수불 스님의 간화선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대체로 좋은 체험이었다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참선에 대한 부끄러운 기억으로 인해 거리를 두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재가자 학생들도 "통과했다" 하니,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다. 또한 '중이 돼서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뉘우침도 있었다. 그래서 2012년 여름방학에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에서 진행하는 수불 스님 간화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낮엔 참선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을 까딱하는 이놈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를 받았다.

나도 '통과!' 하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몰입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의식은 명료했고 각성 상태가 최고조에 도달한 것 같았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꿈에서도 화두를 드는 듯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으나 이전처럼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다. 다리가 아플 때마다 조용히 바꿔 앉기를 반복했다. 낮엔 국제선센터에서 화두에 집중하고 밤엔 센터로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화두를 타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러갔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지만, 간화선 프로그램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묵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나는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번에는 온종일 화두에만 집중했다. 집중할수록 몸 상반신이 빙글빙글 돌았다. 돌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면 멈췄지만, 화두에 집중하면 또 다시 빙글빙글 돌았다. 수불 스님이 "도는 것에 의식하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화두를 들었다.

4일째 되는 날 오후였다. 아픈 다리를 고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박카스 마실 때처럼 싸~ 한 기운이 위로 아래로 조용히, 부드럽게, 서서히 퍼지더니 머리가 개운해지고 묵직했던 에너지 덩이가 흩어졌으며 뭔가 가벼워졌다. 심각했던 뭔가가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신감이 생기고 발걸음에 힘이 느껴졌으며 고개가 들려지고 눈이 뜨였다. 이전까지 심각했던 어떤 것이 없어졌는데, 내가 미끄러져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속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사라졌다.

간화선 설문조사 과정서
연구자에 대한 불만 느껴
무반응에 대한 감정 표출
마음 그림자 자극에 반응

다음 날 수불 스님께 점검을 받았다. 스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속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말했던 '통과'라는 과정을 지났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놓아지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았다. 통과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안정감 같은 것이었다.

반응이 없을 때 일어나는 화두

두 번째 간화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였다. 한 스님이 간화선 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서술하는 방식이었다. 설문에는 실명, 사는 지역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했다.

'실명을 쓰라고!', '급여가 이 연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자 불쾌해졌다.

당시 나는 급여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마치 급여로 내 존재의 가치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상했다.

특히 실명과 급여를 체크하는 목록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연구에 도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회수해 가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의 설문지는 회수해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내 것만 방치된 듯 그대로 있었다. 3일째가 되자 화가 났고, 그래서 나는 설문지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연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설문에 충실히 답했지만, 그녀는 이틀 동안 내 설문을 방치했고, 나는 그것에 화가 더 났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지!' 궁금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뭐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어?' 첫째, 실명을 쓰게 해서 참여자의 신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 즉 안전하지 않다. 둘째, 간화선 체험이 급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친절하지 않거니와 급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배려 하지 않았다. 셋째, 내가 승려로서 절에 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마치 무능해서 '개인 사찰(절)을 개설하고 운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그리고 그 사실이 공개될까 봐 두려웠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불만은 연구자 스님의 무반응이었다. 설문 구성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연구자 스님이 곧 회수해 갔더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면의 답이 있었다. 반응이 없었다는 것에 화가 폭발한 것이다. 안전은 나에게 중요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친절하지 못한, 배려심 없는, 비난하기 등은 모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그림자의 일부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림자가 건드려진 상황이라서 화가 났던 것이다.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다

나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반응을 보이면, 좌절하고 화를 냈다.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의식적으로 참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이번엔 며칠 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처음엔 연구자의 잘못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어린 시절, 아기의 웃음에 어머니가 공감반응을 하지않는다면 아기의 느낌은 어떨까? 무가치함, 분노, 불안, 짜증 등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아기는 울음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했겠지만, 아기는 다양한 자극들을 처리할 충분한 심리적·육체적(뇌의 발달) 능력이 없기에 쉽게 불안해진다. 아기가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머니는 토닥이고 어루만져 주며 아기가 안정하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의 안정된 정서 상태가 아기에게 전달되고, 아기는 이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통합해 나간다. 그래서 아기가 자아감과 안정감을 갖기 위해선 안정적인 대상(어머니)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 부모가 아기의 자기대상(selfobject) 기능을 잘 수행해 주면, 안정된 자기 구조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자기 구조가 취약해져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된다.

내가 그 스님의 반응에 의존했던 것처럼.

나는 농사일로 바빴던 어머니의 직접적인 돌봄보다 언니들의 돌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언니들이 아무리 잘 돌본다 하더라도 그녀들 역시 돌봄이 필요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나이든 어머니는 손주를 키울 때처럼 당신 자식을 키우지 못했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어째 키웠는데요?"

"돼지 새끼처럼 키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던져 놓으면, 지(자기)가 알아서 컸지."

아이의 눈을 맞추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여력도 없이, 바쁘고 힘들게 살았다고…. 1935년생인 어머니의 삶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년생의 손주를 키우던 어머니의 모습은 헌신 그 자체였다.

한 개인은 일생 동안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만약 대인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길 바란다. 대인관계의 원형은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으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니, 실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 자기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있는 그대로 보기를.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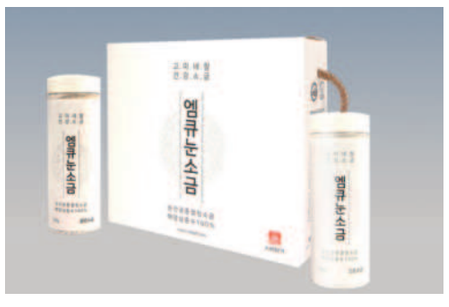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04 호 현대불교
2022년 9월 21일(음 8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그저 닥치는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려라

중심 잡고 마음공부 하려면

질문 마음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니 마음공부에 대한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법문이 있고 수많은 책들도 있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고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람이 마음을 배우려면 모든 거를 이 마음으로 들이고 내야 합니다. 잎새 하나까지도, 그 나뭇가지의 털 하나 난 것까지도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딴 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들이고,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전체 도리가 뿌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보니까 이거는 안됐다 잘됐다, 남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틀리다 옳다, 또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옳은 일이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생각 마세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잘된 거든 잘 안된 거든, 미웁든 곱든, 길든 짧든, 못났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모든 것은 무조건 거기에다 놓고 그저 무조건 입력을 하세요. '너만이 헌 물이 새 물이 되게 할 수 있어.' 하고요. 이거는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계이기 때문에 무한량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느 집에 사람이 살러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그 집을 싸게, 반값에 사 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 이런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산다면 한 반절밖에 주지 않을 텐데요." 하길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저 있는 것들은 모조리, 천 개도 좋고 만 개도 좋고, 허허허, 십만 개도 좋으니까 한도량에 있는 거, 몽땅 그냥 거기다가 한바다에 집어넣듯 집어넣어 봐라.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냥 바다지 물방울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지 않는다. 다 집어넣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사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랍니다. 금방 한 사람의 사람이 돼서, 또 사람은 도로 사람이 돼서, 수레바퀴에 돌려져 가지고 재생이 돼서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의 마음속을 돌아서 한번 그렇게 본받아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다 녹아지고, 두려움이 없고 인간의 나쁜 마음의 기운이 없이, 그저 자비하고 인정 많고 권위 있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됐으니, 꿈에서 고맙다고 그냥 백배사례를 하더랍니다.

이제 참, 의인을 만나서 좋은 길을 걷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잘 사시라고 그러고선 이만한 구슬 하나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이 죽기는커녕 아주 잘되니까, 판 사람이 배가 아플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더 준대도 안 팔고 오히려 그 집이 낡았으니까 헐고선 다시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물방울이 수백 개 수만 개라도 한 그릇에 넣으면 한 그릇의 물이지 딴 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일 불(一佛)입니다, 일 불!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법당에 부처님을 천 불을 해 놓거나 만 불을 해 놓거나, 이 부처 저 부처 많이 해 놓으면 머리가 산란해서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중이니 독성이니 칠성이니 지장이니 관세음이니 할 것 없이, 만 불이니 천 불이니 할 것도 없고 마구니들도 아주 둘 아니게 다 그냥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걱정도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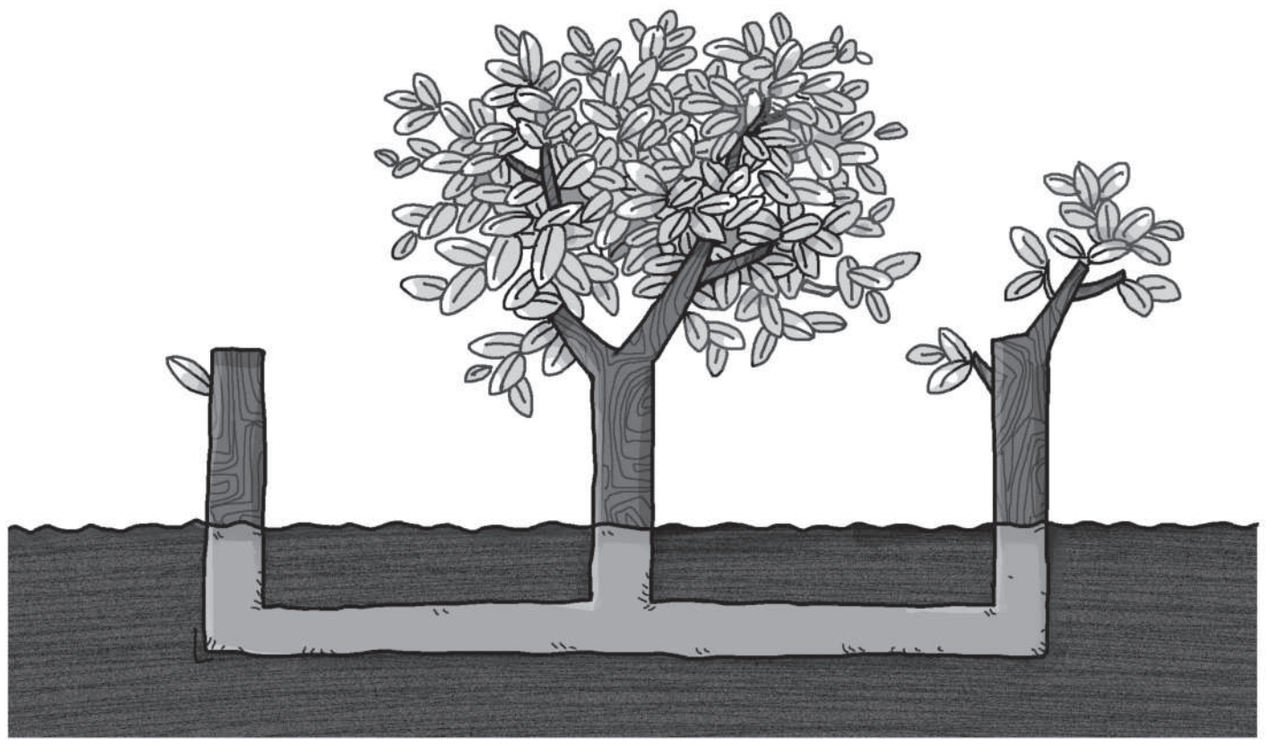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산 사람은 모습이 있고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몽둥이로 쳐도 보이질 않으니 누가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를 치는 사이 없이 치고 맞는 사이 없이 맞았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치게 해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고, 열쇠를 받는 것도 그런 거를 다 알아서 능통하고 모두 마구니도 둘 아니게 볼 줄 알고, 자기 아님이 없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돼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미에 맞지 않으면 톡 때려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고 미우면 그냥 콕 때려서 파산을 시키고 이런다면 어떻게 그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이쁘든지 밉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둘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와 둘 아니게 보고 자기 아픔과 둘 아니게 보고, 자기 부모 아님이 없고, 자기 자식 아님이 없고, 자기 형제 아님이 없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한바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항상 문을 열고, 우리가 인생 한 철 사는 거를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십시오.

습을 녹이고 차원이 높아지고 싶어요

질문 뜻으로 푼 천수경에도 "육신의 습성을 녹이게 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서 저도 나름 노력하는데 저에게 쌓인 습을 녹이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그 습을 다 녹이고 차원이 높아지고 싶은데 부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본래 사람은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아서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는 것이 바로 공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한 거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이래도 그걸 곧이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아예 곧이 안 듣는 겁니다. 그 관습에 의해서 말입니다. 살아나온 그 누더기가 붙어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 우리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서, 하나도 거칠 게 없고 걸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냥 따라서 기쁘게 살라.' 이래도 하여튼, 기쁘기는커녕 요만한 거 하나라도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하천세계의 생명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모든 거를 보세요. 인간이 짐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굴려서 제 차원대로 다 나누어지니까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그거야 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죠.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만물 중에 인간이 고차원적이므로 99%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거 한 찰나 요렇게 돌리면 될 것을 그렇게 누더기가 붙어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공해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는 거다. 그대로 공해서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이 모든 게 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하루살이가 뭡니까, 일 초살이지. 허허허. 그냥 딛고 가면서 그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바깥에서 닥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려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지럽고 괴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어떤 때는 너무나 딱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여러분한테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분일초도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다 먹어야 다 줄 수 있다.'

☞ 22면으로 계속



입력된 데다 다시 입력을 하면 모든 게 소멸된다

☞ 21면에서 계속

이런 데서 미생물 하나 버림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요거 하나에 착을 둔다면, 그 습을 가지고선 습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습성이 그냥 앙금처럼 앉아 있어서, 아무리 떼려고 애를 써도 떼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떼려고 해서 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는 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제자리에다 되놓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으나 사나, 당장 하늘이 무너져서 쪼개진다 하더라도, 제 생명이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껄껄 웃고 거기다 놓을 수 있어야만이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림을 할 때 가만히 보세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더불어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없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더불어 보고, 같이 더불어 듣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얕다고 할 수도 없고 평등한 나 자신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바깥에도 다 평등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화해서 바로 나투고 진화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달라지고 달라지고 이러는 거죠. 물에서 노는 거나, 들에서 노는 거나,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가 확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환경에 맞게 진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물속을 활보하는 데 지느러미가 필요하다면 지느러미를 나오게 하고, 또 가파른 산길을 다니기 위해 앞발을 좀 더 짧게 하고, 또 평지에서 많이 못 뛸 때는 좀 더 길게 하고…, 이런 작업들은 합니다. 허나 그거를 좀 더 높여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하천세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중천세계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뭐, 고정된 게 없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아이구, 이만하면 사는 건데 뭐, 그런 공부는 해서 뭘 해, 죽으면 그만인걸." 이러지만 허,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도 없을 거고 진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영화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그대로 지금, 배우 노릇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왜 생겼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러지만 자기한테 다 감겨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신통 중의 숙명통이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적인 녹음기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스스로 감겨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면 바로,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도 수염이 길어서 붉게 익었다는 얘기로 할 수 있죠, 그거를 알면 우리는 만 가지 천 가지 다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정된 게 없다!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이 한 덩어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세울 것도 없다, 나를 내놓을 것도 없다,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럴 때, 그게 정녕코 알아졌을 때 여기다가 그냥,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놓고 가고, 뭐, 놓고 가려고 해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놔진단 얘기죠, 그냥 믿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몸이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넓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들어 있는 요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안은 거기다가 맡기고 더불어 넓게 좀 보시구요, 이렇게 사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땐가는 '아하, 이게 이런 거로구나. 마음은 항상 체가 없다고 하더니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는구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주먹으로 치고, 땅을 내려다보고 주먹으로 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다가 웃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벗어나려면 마음공부 열심히 해야죠.

업장소멸 한다고 노력하는데

질문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절에 다니면서 업장소멸 한답시고 경전도 많이 읽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 이 모두를 그렇게 일일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따져서 말을 한다면,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요거는 어떻게 심어서 요렇게 해 먹고, 저거는 어떻게 심어서 이렇게 해 먹고, 어떤 거는 물을 줘야 하고 어떤 거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천년만년이 가도 나를 뛰어넘진 못해요. 그런데 내 몸뚱이 하나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먹어도 내가 먹었단 말을 못 한다. 내가 했어도 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업보가 될 리가 없죠.

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쉴 사이도 없고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주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된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면 모든 게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입력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근거가 있어서 나왔으니까 나온 자리에다가 관해서, 입력을 해서 그 근거를 말살시키면 그게 소멸되죠. 하나하나 소멸시키다 보면 전체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스러워지죠. 점차적으로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릇들을 보세요.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큰 다라이가 있고 이렇죠, 모두가. 그거와 같애요, 사람의 차원도. 그래서 얼른 그것을 납득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납득을 못 하고 중간쯤 가는 분이 있고, 또 아주 맹문이로 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업보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날까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습 말입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렇게 살던 습 말입니다.

그 습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없어지겠습니까마는 그 쌓이고 쌓인 습이 녹아지려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나귀를 얼마나 때리면서 부렸는지, 죽어서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주인은 바로 부인이 돼 가지고, 항시 업보가 입력이 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노상 때리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못 견뎌서, 지나가는 스님의 바지 자락을 쥐고선 그냥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당나귀를 부릴 때 너무 때려서 그 대신 맞는 건데 뭘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도 살려 달라고,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니까 "그러면 돗자리를 도르르르 말아서 꼭꼭 묶어 가지고 당신을 때리기 쉬운 자리에다가 놓아 두어서 그걸로 때리게 해라. 돗자리의 엮어진 줄기 수효대로 때린 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돗자리를 똘똘 말아서 놔두고 있으니까 한 사나를 그걸로 때리더니 한참 자고 일어나서 "당신을 왜 내가 때렸지?"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누리가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에누리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에누리가 없고 말고 간에 그냥 그냥 소멸된다 이거죠. 이 소멸되는 공부는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 이 공부밖엔 없어요.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나오면서 너무 해이해진 것이죠. 학으로만 공부하는 분들,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분들은 아는 건 많지만 아주 극한 마음을 낸 그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장대로 습관대로 그냥 막 튀어나와서 싸움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통 안에서, 네 자체 근본, 네 마음이 벗어나야 네 몸을 자유스럽게 다스리고 맘대로 굴릴 수가 있느니라." 즉 몸이 통이죠. "네 마음이 네 몸속에서 아주 꼭 잡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네 몸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두 하시겠죠. 그런데 몸 바깥으로 내가 벗어나서 내 몸을 굴릴 줄 안다면 그건 뭐, 모든 것으로부터 거침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끔 다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정신계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는 거는 그 정신계에서 대책을 세우고, 보이는 데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리와 도의를 지키면서 말을 지혜롭게 해 나가면 그대로죠,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는 한 번 그렇게 해 보기도 했어요. 그게 스스로 돼야죠. 억지로는 안 돼요. 습이 다 녹고 업력이 다 소멸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이익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없어져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생해도, 붙들려서 맞아도 나는 그 사람 탓을 안 했으니까요. '아! 나를 부딪히게 해서 단련시키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죄없이 맞은 거는 빨리 낫는다고 하는 말도 있죠. 그렇듯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것을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제삼자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드뭅니다. 공을 치면 튀어 온다고 그러죠. 분명코 치면 튀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막 해 댄단 말입니다. 욕을 해 대면 그 욕한 것이 나한테까지 튀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둘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도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관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백팔십도로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치면 누가 좋으냐 하면 자기가 좋거든요, 편리하고. 앙숙으로 지내다가도 편해지거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냥 의리가 나빠서 싸우고 하는 것이 다 마음 싸움이거든요. 그 업보로 인해서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만났던 과거의 인연들이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만나서 앙숙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더러 내가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너도 전에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해서 지금 현실에 온 것은 너는 몰라. 너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구요, 또 그게. 뭐, 그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소멸시키는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실천요.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현불 논단

신안군 '기독교체험관' 건립 중단하라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신안군청 1월 '기독교체험관 공모
예산 95억원 투입… 명백한 '위헌'
'천사섬' 부각도 '견강부회'의 행위

숙종代 임자도에 中무역선 표류해
'기흥대장경' 전래…韓화엄학 발전
조선 후기 사상 전반에 영향 미쳐
기독교체험관 아닌 해양사 조명을

신안군은 올해 1월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3월에는 해당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자도의 기독교 역사와 상징성을 드러내는 기독교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체를 선정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불교계는 종교편향 행정을 항의 하였으나 신안군 공식 입장은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사업 중지가 어렵다고 한다.

기독교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종교편향 행정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였다.

신안군청이 기독교체험관을 건립하는 행정은 명백한 위헌이요 범법행위이다. 군청이 나서서 임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비와 군비 95억 원을 들여서 부지 3만 평을 매입하여 기독교체험관을 지어 기독교 체험을 시키는 선교행위를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생뚱맞게 신안군 1025개 섬을 1004섬(천사섬)이라고 각색한 것 역시 견강부회이다.

헌법 20조 2항에서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 활동과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 교육 행위도 위헌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국민이 공동으로 제정한 사회규약을 준수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행복이 지키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상의 정치제도이다.

신안군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임자도 섬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에 관계된 지역주민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2021년에 개관한 조희룡미술관은 아주 적합한 사업이다. 조희룡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당대 유명 화가인데 임자도에서 3년 유배생활을 하였다. 임자도 유배지 예술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하는데 의미가 있다.

〈숙종실록〉에 보면 조선 숙종 7년(1681년), 중국에서 〈가흥대장경〉을 싣고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이 태풍으로 임자도에 표류한 큰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 대장경판으로 〈황벽판대장경〉을 편찬 간행하기 위하여 싣고 가다가 생긴 일이다. 숭유억불 조선시대에 중국의 불교와 단절된 상황에서 조선후기 불교의 사상적 공백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때마침 백암성총(1631~1700)이 소식을 듣고 바다 위에 떠있는 대장경을 수습하여 순천 징광사에서 10여 년을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당나라 화엄종의 4대조사 징관대사의 〈화엄경수소연의초〉 90권과 〈회현기〉 40권, 〈정토보서〉 1권 등 12종 197권 5000판목을 10여 년에 걸쳐 판각하여 불교강원 교재로 사용했다. 이것은 조선후기 화엄학 불교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불교가 선불교이면서도 화엄경(교종)을 함께 수행하는 선교합일 종교가 되고, 염불(정토보서)까지 수용한 것은 임자도에 표류해 건진 〈가흥대장경〉이 조선불교에 전래된 덕분이다. 이 사건은 한국불교 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불교교단과 신안군청은 임자도에 가흥대장경판이 표류해 성종대사가 판각해 간행한 불교경전을 수집하여 전시해야 한다. 신안군청이 종교형평 행정에서 벗어나려면 차라리 '기독교체험관'의 명칭을 '해양종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변경해서 각 종교단체에 의뢰하여 종교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자도는 한중일 3국 동아시아 해양국가의 길목에 있는 섬인 만큼 바닷길 해양문화·예술의 역사를 연구해 바닷길 유람선 관광사업을 계획해 볼 일이다. 잘못된 오류나 정책은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社 說

무산선원, 예술 종교 경계 허무는 공간되길

서울 북한산 자락에 이색 사찰이 문을 열었다. 9월 19일 개원한 '무산선원(霧山禪院)'이다. 선원명에 나타났듯이 이시대 선지식이자 시조시인이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한 前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1932~2018)을 기리는 공간이다.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고즈넉한 계곡 옆 약 200평 공간에는 법당과 작은 강당인 요사채가 놓였다. 작은 암자가 있던 이곳은 무산 스님의 제자 삼조 스님의 원력으로 반년간 리모델링 끝에 현대적이고 파격적으로 재탄생했다. 법당 외벽은 무산 스님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 담겼고 '파도' '아득한 성자' 등 스님의 시조 작품도 친필로 새겨져 있다. 요사채 안에는 스님이 생전 수행했던 가사와 함께 유골함, 주석했던 백담사에서 공수한 돌로 조성된 돌탑이 전시됐다.

입구 쪽 마당에 마련된 불상 옆에는 약 2m 높이의 성모마리아 상도 들어설 예정이다. 종교 구분 없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이는 종교 간 화합을 강조한 무산 스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다.

'설악산 호랑이'로 불리며 정치권과 문화계, 종교계, 사찰 인근 지역 주민까지 이념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와 거리낌 없이 인연을 쌓았던 무산 스님.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은 이곳을 다양한 예술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무산 스님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전통적인 참선이나 기도보다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백담사 인근에 '만해마을'을 만들어 시인과 소설가들이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집필실을 제공했고, 매년 '만해축전'을 통해 문화예술 잔치를 벌였던 무산 스님의 세상을 향한 깊은 뜻이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불교명상 공공 기여로 전법포교를

불교문화가 곧 우리 전통문화라는 인식이 불교계에는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임을 감안해보면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돌려보면 불교는 사회와 괴리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불교는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종교에 머물러 있다.

이런 와중에 불교명상을 통한 사회기여는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불교상담개발원은 서울시와 함께 '늘봄'이라는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심적으로 고통받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마음쉼프로젝트 중 하나로 먼저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후에는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 종사자들에게 명상의 기회가 제공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많은 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희생 속에 생명과 안전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사회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교명상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마음치유까지 확장될 것이다.

불교는 사회 각 분야, 특히 공공분야에서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에 있다. 불자공무원의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명상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좀 더 불교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불교계가 진행해 나갈 공공분야 불교명상은 전법포교의 씨앗이 될 것이다. 공공분야 불교명상 프로젝트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루는 수닷타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가장(家長)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수닷타장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소유'라는 행복이다. 부지런하게 일하여 정당하게 벌인 재산을 갖는 일이다. '나는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의 행복이다.

둘째는 누리는 행복이다. 정당하게 얻은 부를 누리면서 공덕을 짓는 것이다. '정직하게 얻은 재산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셋째는 부채를 지고 있지 않은 행복이다.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아무런 부채도 짊어지고 있지 않은 가장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다' 고 하는 생각이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넷째는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다. 행동, 말, 생각으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는 가장은 행복하다."

수닷타장자는 일생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존경하여 기원정사를 지어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수닷타장자는 자신이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리고 돈을 벌었다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써라.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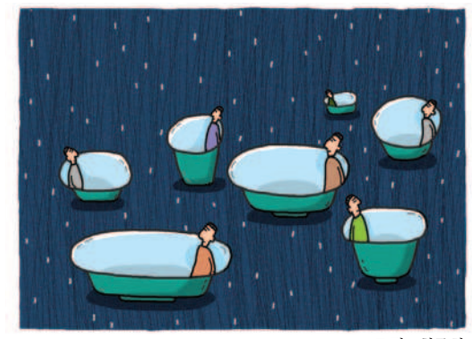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는 '적게 소유하는 삶'을 요구했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더 선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를 성취하여,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은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며, 돈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富)를 성취한다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돈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오만을 부린다면 그것은 돈으로 자신을 헤치는 것입니다.

돈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더라도 '돈벼락 좀 맞아보고 싶다'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고통이 몇 배로 커져 돌아온다는 것에 주목하면 그리 바랄 일도 아닙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융불교대학 10기 학인 수시모집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학인 모집
●학장 : 종무원장 도안스님 ●담당 : 교무국장 혜묵스님 ●강주 : 신덕스님
교육과정 초급반, 고급반
조석예불, 종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 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접수기간 수시모집
수 업 일 매주 화요일 초급 오후1시 ~ 3시, 고급 3시 ~ 5시
개강일시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장 소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0번길 8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모집학과 불교의식(범패)학과, 기초 불교 교리
수 강 료 한달 5만원, 교재비 별도 *상기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반명함사진1매, 입학원서(불교소정양식)1부 (태고종승려는 승적증명서1통, 수계증 사본)
접 수 처 충북교구종무원 043)265-7100 교무국장 010-5338-7701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보살, 재가불자, 일반인 염불의식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원가 상승으로 10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 되오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법왕과 각국 승왕단이 주관하는 품수의식

국제 합동 보살계 금강계단 대법회

전계대화상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 칠증사 증명단

불조의 법맥 전수 봉행

참여예정국가 :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몽골, 중국, 대만, 일본

일시 : 2022년 11월 12일 (토) 1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관 대강당**

상좌부 최고 상가라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불조의 법맥을 전해받은 수법제자로서 계유과 전통을 이어받아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를 통하여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수지하고자 합니다 법상좌의 수법제자로 四種鉤印(사종구인)하여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부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함께하여 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 고통받는 불우 이웃이 없기를 기원하며 이타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세계 각국 정신적 지도자들이신 법왕과 승왕을 모시고 한국 불교 각종단 큰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요 중생의 지팡이신
530여 종단 종정 큰스님 총무원장 스님
성스러운 법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 사전 등록해주시면 정해진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봉행단 총재 **금당 목탁 대승정** / 봉행추진 위원장 **금강 혜정 대종사** / 조직위원장 **법성, 현담, 대공** / 심사위원장 **법원, 심오, 법륜, 월오, 월산, 혜오, 월암, 법성, 현경, 송운, 법운, 대도, 백련** / 봉사단장 **박정의, 정영숙,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박정하, 모미숙, 송윤서, 김명옥, 김경실, 황은지, 윤점심, 김미숙, 김유자, 이양순, 이재옥** / 경호처장 **고동욱** / 의전봉행위원장 **김재은, 이정희, 김수경**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제12회 세계 붓다 평화 봉사대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3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습니다.

법하의 주위에 봉사와 헌신으로 승가 재가자 중
자랑스런 살아있는 보살(봉사대통령)을 추천해 주세요.

*본 협회는 어떤 명목이든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봉사 대상 상패와 훈장 기념품 증정

제출서류 : 봉사자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및 봉사내역, 3개월 미만 여권사진 2매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첨부가 안된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14758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214874 (예금주 :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전화 : 02-733-5665 HP : 010-3618-6061